

R1.1.8

인권하루소식

합본8호
(97년 상반기)

..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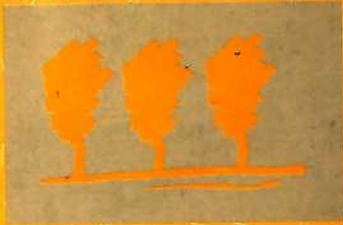


인권운동사랑방

합본8호 (97년 상반기)

R1.1.8

인권운동사랑방



인권하루소식

합본 8호

(제797호 - 제914호)

1997. 8.

인권운동사랑방

- 1면 · 현대자동차 노동자 정재성 씨 분신, 날치기 원천무효 주장
 - 전국 8백여 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, 노동·민주진영 총집결
 - 농민운동가 최종진 씨 폐암으로 운명
 - 총파업 투쟁일지(97.1.9-10)
- 2면 · 경찰, 병원노련 압수수색 과정서 성추행
 - <인터뷰>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
 - 세계의 인권 ⑨ 폭력속의 여성 "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/3 여성차지"

제802호(97.1.14, 화) /51

- 1면 · 국내언론, 노동법 관련 기사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
 - 국제급속노련 사무총장, 분신노동자 격려방문
 - 총파업투쟁일지(97.1.11-13)
- 2면 · "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", 광노련 교수
 - 주간인권호름(97년 1월 6-12일)

제803호(97.1.15, 수) /53

- 1면 · '불고지' 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,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우려
 - <인터뷰> 이민섭 김형찬대책위 상황실 차장, "안기부법 개악 반대"
- 2면 ·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·형법 학자들의 견해
 - 총파업투쟁일지(97.1.14)

제804호(97.1.16, 목) /55

- 1면 · 총파업 집계 양대노총 72만 노동부 10만 무려 7배차
 -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, 참여연대 "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"
 - 애청 이원영 씨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
- 2면 · 병원노련, 성추행 규탄대회, 도덕불감증 정부 비난
 - 전국 변호사 554명, "날치기처리 원천무효"
 - "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"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
 - 총파업 투쟁일지(97.1.15)

제805호(97.1.17, 금) /57

- 1면 · 야당·시민단체 전기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
 - 창원지법,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
 - 폭행현장 목격자 외신기자를 찾습니다
- 2면 · 민주노총·한길리서치 여론조사, 노동법 무효화 65.3%
 - 위안부시민연대 성금모금에 큰 차질, 정대협 언론오보에 항의
 - 경찰 보복적 폭력행위, 국민회의 대전지부
 - 통신서명 5천명 돌파
 - 총파업투쟁일지(97.1.15-16)

제806호(97.1.18, 토) /59

- 1면 · '조작간첩'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
 - 신한국당 TV토론 거부, 여론호도용 정치쇼 스스로 입증
 - 윤석진, 홍성담 씨 선고재판 연기
- 2면 · 민변,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대립

제807호(97.1.21, 화) /61

- 1면 · "파업포기 절대 안된다", 전국서명교수·민교협 시국대토론회
 - 군산교도소 이동주 씨 눈수술, 수행자 치료비 "국비 원칙" 당연
 - 민주노총·범대위, 노동법·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교수
- 2면 · 미군 공여지 되찾기, 주민 16명 환매소송
 - 주간인권호름(97년 1월13-19일)

제808호(97.1.22, 수) /63

- 1면 · 민주노총 구속 8명의 고소·고발 416명
 -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, "무효화,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"
- 2면 ·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 촉구
 - 국제엠네스티·휴먼라이츠워치, 안기부법·노동법 항의
 - 민변, 북한 쌀 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

제809호(97.1.23, 목) /65

- 1면 · 종교계 공작·사찰 예외 아니다
 -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, "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제한"
 - 정대협, 한일회담 개최 반대
 - 빈민운동가 김홍겸 씨 사망
- 2면 ·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⑤ 전국연합 인권위 고상만 간사
 - 투쟁일지(97.1.20-22)

제810호(97.1.24, 금) /67

- 1면 ·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
- 2면 · <인터뷰>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 소장
 - 양 노총 공동 전국노동자대회, 3월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

제811호(97.1.25, 토) /69

- 1면 ·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징역 10-4년 구형
 -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약(요약)
- 2면 · 전국연합, 안기부 정치공작 의혹 지적
 - 천주교인권위, 대만 핵폐기물 매립반대

- 여연 정기총회, “신한국당 대선심판” 결의
- 대전민가협, 파업 구속자 전원석방 촉구
- 총파업투쟁일지(97.1.23-24)

제812호(97.1.28, 화) /71

- 1면 · 안산 덕부진흥, 대량해고 · 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
 - 전국교수 농성돌입, 악법철폐 및 재개정 촉구
 - 유권자 75명, 날치기 주역 검찰고발
- 2면 · 집회참가자 이유없이 물품 빼앗겨, 영등포서 “신고시위용품 아니다”
 - 주간인권호름(97년 1월20-26일)

제813호(97.1.29, 수) /73

- 1면 ·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, 삼성의 쌍용 인수 저지 연대총파업 선언
 - 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촉구, 전국 주요도시 안기부 앞 항의시위
- 2면 · 민노총, 4단계 총파업 준비 박차
 - YS, ‘위안부’ 언급 회피, 정대협 등 “굴욕” 비난
 - 전국교수서명모임, “독점재벌구조 개혁하라”

제814호(97.1.30, 목) /75

- 1면 · 영수회담 이후 노조 각개격파, 범대위 · 야권,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
 - <악덕탄압 사업장 실례>
- 2면 · <총파업 관련 발제문 요약> -김세균 교수

제815호(97.1.31, 금) /77

- 1면 · 시민헌법재판, “날치기 노동법 · 안기부법 위헌”
 - 예장총회 날치기 무효화 시국선언
- 2,3 · 97년 1월분 총목차(797-815호)

제816호(97.2.1, 토) /83

- 1면 · 인권협, 김형찬 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
 - 위안부 문제 시민연대, “국제연대로 전범처벌” 주장
- 2면 · 세계의 인권⑩ 초대받지 않은 손님, 이주노동자

제817호(97.2.4, 화) /85

- 1면 ·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
- 2면 ·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,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
 - 노동법 집회 30명 부상, 민주노총 “부산경찰청장 파면” 요구
 - 주간인권호름(97년 1월27일-2월2일)

제818호(97.2.5, 수) /87

- 1면 · 억울한 형벌 ‘보호감호’, SBS ‘그것이 알고 싶다’ 실상보도
 - <현장스케치> 강덕경 할머니 장례식
- 2면 · “뒤로 넘어지더니 이마 함몰됐다”,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의혹투성
 - 고 강덕경 할머니가 걸어온 길(김혜원 정대협 사료관 준비위원장)

제819호(97.2.6, 목) /89

- 1면 ·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, ‘비인도적 처사’ 논란
 - 재계, 4단계 총파업 부채질- 대안 외면, ‘노조죽이기’ 총력
- 2면 · 전교조 16개 시도 교원노조 합법화위한 추진본부 결성
 - 한총련 의경치사사건 선고
 - 김 정권 34명 사형집행, 미집행 사형수 52명

제820호(97.2.11, 화) /91

- 1면 · 집시법, ‘보호법’인가 ‘탄압법’인가- 시위용품, 참가자격 시비까지
 - <성명서>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태도 규탄(진보정치연합)
- 2면 · 주간인권호름(97년 2월3-9일)

제821호(97.2.12, 수) /93

- 1면 · 노점상 민병일 · 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
 - 용인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분신, 분신사유는 ‘학원자주화 · 사회민주화’
- 2면 · <자료 요약>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: 남한편 ①

제822호(97.2.13, 목) /95

- 1면 ·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- 부천 상품화장품등
- 2면 · <자료 요약>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: 남한편 ②

제823호(97.2.14, 금) /97

- 1면 ·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, 민주노총 · 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
 - <인터뷰>노동법 공동수업 진행한 정진화 교사
- 2면 · <자료 요약>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: 남한편 ③
 - <성명> 정부의 살인적 철거폭력만행과 생존권탄압 중단촉구

제824호(97.2.15, 토) /99

- 1면 · ‘망명’ 대서특필, 북 주민 생존권 외면
 - 용인대 한상근 씨 숨겨, 대책위 “학교측 공식사과” 요구
 - 진관스님 1차공판 열려
 - 노점상 이종호 씨 사망, ‘뇌출혈’ 추가 발견

- 2면 ·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
· 용인대생 한상근 씨가 남긴 글귀 중

제825호(97.2.18, 화) /101

- 1면 · 교사단결권, 전세계 합의사항-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
· 전노협 백서 발간, 민주노조 10년 기록
- 2면 · 종묘서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, 이종호·한상근 씨 장례 치러
· 교회협 홈페이지 개설
· 주간인권호름(97년 2월10-16일)

제826호(97.2.19, 수) /103

- 1면 · 노점상 이종호 씨 사건 불공정수사 우려
· 경찰폭행당한 뇌성마비 장애인, 1년 지나도록 병상생활
· 전국연합, "정치사찰 저의 우려"
- 2면 ·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-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

제827호(92.2.20, 목) /105

- 1면 · 진상조사위원회, 민병일 씨 사인 "경찰폭행치사" 확인
· <언론비평> 이한영 씨 피격사건
- 2면 · "앞으로 열흘이 노동법 승패 가름한다" 민주노총, 가두집회 재개
· <자료>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- "교사단결권등 보장 촉구"

제828호(97.2.21, 금) /107

- 1면 · 공안정보기구 개혁위한 국제심포 개최
- 2면 · 전국시국선언자대회, 노동법 재개정 촉구
· 영등포교도소, '안보' 이유로 면회 불허
· 전국연합, "대북 민간지원 인정" 촉구
· 서평: <사상> 겨울호 '특집'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
·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

제829호(97.2.22, 토) /109

- 1면 · 민주노총 입장 변화없다, '정리해고 수용' 보도 사실과 달라
· 안기부법 무효화 불투명, 24일 노동법안 심의
· 류세홍 씨 가족,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
· 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 재임
- 2면 · <자료 요약>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: 북한편 ①

제830호(97.2.25, 화) /111

- 1면 · "안기부 개혁 필요" 74.2%- 인권협·한길리서치 설문조사
· "날치기 원천무효" 범대위 총력투쟁
- 2면 · 전교조 1천5백명 여의도 집회
· 주간인권호름(97년 2월17일-23일)

제831호(97.2.26, 목) /113

- 1면 · 김 대통령 '말로만' 반성,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
· "3월15일 '경찰폭력 반대의 날' 갖자" 캐나다 민간단체, 국제행사 제안
· 51만여 명 서명 참여, '날치기 무효' 국회청원
- 2면 · <자료요약> '구국전위'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

제832호(97.2.27, 금) /115

- 1면 · 고질적 경찰폭력, 경기대 난입...개폐듯 패놓고 무협의 석방
· 민주노총, 단위노조 간부 파업
· 전국연합 6개 대의원 대회 "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" 결의
- 2면 · <국제심포지움>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-마르틴 쿤츠(독일)

제833호(97.2.28, 금) /117

- 1면 ·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,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
·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여전, 방양군 씨 출국제한
- 2면 · 일본전범 입국금지, 우리도 하자- 일본군 '위안부' 국제세미나 열려

제834호(97.3.4, 화) /121

- 1면 · '잠수함 사건' 의혹제기 또 구속,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위반 혐의
· 시민·사회단체 특별검사제 촉구집회
- 2면 · '빛나는 전망' 3명 연행, 국보법 위반
· 전국연합, 안기부 기밀유출 규탄·안기부법 재논의 촉구
· 범대위 자료집 판매
· 주간인권호름(2월 24일- 3월 2일)/97.3.4 2 834
- 3면 · <인권시평> "아직도 인권타령이냐?" (김동한 교수)/97.3.4 3 834

제835호(97.3.5, 수) /124

- 1면 · 교사탄압 본격수순 돌입...교육청, 학교마다 자술서 요구, 전교조 가입경위 조사
· 경찰폭력 반대의 날, 15개국 40여 단체 참가
· 미세스코리아 선발대회, 주부 1천명 강력항의
- 2,3 · 2월 총목차(816-833호)

제836호(97.3.6, 목) /127

- 1면 · 경찰 학원 난입, 방치할 것인가?... 학생은 무대응, 학교는 수수방관
· 장기수 김인서 씨 북한딸 서신, 민족화해 차원의 송환 당부
- 2면 · <세계의 인권 11> 기아 “굶주린 어머니와 배고픈 아이”
· <국제심포 자료요약>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(그레고리 노집 변호사)
- 3면 · FBI의 정치사찰 및 CIA의 해외개입증지를 위한 투쟁(키드 게이저)

제837호(97.3.7, 금) /130

- 1면 · 한국타이어, 노동기본권 실종, ‘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’ 단식농성
· <서독 정보기구>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
- 2면 · <자료요약> “헌법보호청” 독일 국내정보기관의 문제점(돌프 피스너 변호사)

제838호(97.3.8, 토) /132

- 1면 · 사회각계, 헌법재판소 위헌평결 촉구 “날치기 위헌, 애들도 알아야”
· 민족민주열사·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 학술회의
- 2면 · YS 임기말기... 노 정권과 흡사, 민가협 정기총회서 날치기법 철회결의
· <표> 김영삼 정권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
· AI 한국지부, 세계여성의 날 성명
· 노점상 종묘집회, “민병일 씨 사건 수사 지지부진”

제839호(97.3.11, 화) /134

- 1면 · 새 노동법, 노조 발목기 성공... 파업권 현저히 제한
· <표> 날치기 개정 이전과 여야 단일안 및 국제기준 비교
· 고려대 직원, 프락치 의혹 ... 수위실에 학생회 관련자료 보관
- 2면 · 경찰폭행으로 사망한 이종호 씨 유족, 손해배상 소송 제기
·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,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
· 주간인권호름(3월 3-9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(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)

제840호(97.3.12, 수) /137

- 1면 · 헌재 공개변론서,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“날치기 정당했다”
· 법학교수, 헌재 판단 촉구 “헌재 판단 유보, 제2의 날치기 방조행위”
· 민주노총 제1회 정의평화상 수상
- 2면 · <자료요약> “국가 속의 국가”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(돌프 피스너 변호사)

제841호(97.3.13, 목) /139

- 1면 · 광기와 이성의 대결 ‘안기부법 국회 공청회’ “간첩잡는데 무슨 인권?”
· 북아일랜드 ‘여성과 전쟁’ 세미나, 위안부등 전쟁시 성폭력문제 다뤄
- 2면 ·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⑥-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

제842호(97.3.14, 금) /141

- 1면 ·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“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”
·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
- 2면 · 인권영화 ① 돌로레스 클레이튼 “여성이 갖는 두 가지 빛깔의 분노”
·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, 개정형사소송법등 인권강의
- 3면 · <기고>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(정유진)

제834호(97.3.15, 토) /144

- 1면 · 직업법 피해자 4백여 명 대규모 농성 “끝나지 않은 고통, 원진레이온”
· 전국연합 이 대표에 공개선한 “날치기법 소신 밝혀라”
· 427개 통신동호회 “안기부법 반대”
· <한권의 책> 『국제인권법』(장간호)
- 2면 · <자료요약>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과제(박연철)
- 3면 · <자료요약>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민주적 투쟁의 전망(곽노현)

제844호(97.3.18, 화) /147

- 1면 · 53차 유엔인권위에 오르는 날치기법
· 유엔인권위 주요의제
· 원진피해자 93명 연행 “원진 전문병원 설립” 촉구 시위
- 2면 · 제네바 소식 ① 3.10-14
· 주간인권호름(3월 10-16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(곽노현 교수)

제845호(97.3.19, 수) /150

- 1면 · AI,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제도 공개 논의 촉구
· 사민청 회원 9명 연행, 94년에도 ‘이적단체’ 혐의 처벌
· 장기수 권양섭 씨 운명, 20일 발인
- 2면 · <3회 연재>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 ①

제846호(97.3.20, 목) /152

- 1면 · 민병일 씨 가족, 민·형사 소송 제기...부검소견 “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”
·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“안기부 바로세우기 힘쓸 것”
·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, 참여연대 성명
· 사민청 14명 연행·구속, 3년만에 같은 혐의로 재구속
- 2면 ·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 ②

제847호(97.3.21, 금) /154

- 1면 ·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, 장애인 등의 ‘완전참여와 통합’ 위한 출발

- '114 유료화 뭐가 좋아졌나' 참여연대 행정심판 청구
- 조선대생 시위도중 사망!!- 병원측, "아직 드러난 외상 없어"
- 2면 · <국제인권뉴스> 과테말라, 거리아동 고문살해혐의 소송 3백건 이상

제848호(97.3.22, 토) /156

- 1면 · 경기여상 12일째 수업거부...학생·교사, 재단비리 척결 요구
 - 시민대책위,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의견서 내무부에 발송
 - 광주 류지울 씨 대책위 결성 "류 씨, 시커먼 물체에 맞았다"
- 2면 ·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 ③

제849호(97.3.25, 화) /158

- 1면 · 기무사,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...대전교도소측,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
 - 인도네시아 정부, 동키모르 시위대에 발표, 2명 사망 38명 부상 48명 체포
- 2면 · 닫힌 교문을 여는 경기여상 학생들 "1백미터 달리기 원없이 해보고 싶어요"
 - 주간인권호름(3월 17-23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언론과 인권 (김동한 법과 인권연구소장, 광주여대 교수)

제850호(97.3.26, 수) /161

- 1면 · 경기여상측, 학생·교사 고발
 - 고 류재울군 대책위 기자회견 "사인 규명·경찰청장 해임"
 -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, 전주대생 4명 구속
- 2면 · <기고>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(오완호, AI 한국지부 사무국장)
 - 인권영화② "시간은 오래 지속된다"

제851호(97.3.27, 목) /163

- 1면 · 27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"원진 전문병원 설립" 촉구
 - 정화려 씨 고소장 접수
 - 참여연대,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
 - 제네바 소식 ② 3.17-21 "유엔에서 거절당한 노벨평화상 수상자"
- 2면 · 원진환자, 치료받을 곳이 없다...원진피해자 치료 사례
 - 동티모르 시위대 7명 사망설

제852호(97.3.28, 금) /165

- 1면 · <노동과 세계>· 한길리서티 여론조사, 국민 53.3% 노조정치활동 찬성
 - AI 한국지부, 언론인위원회 결성
 - 불교인권위 서래스님 연행
- 2면 · <세계의 인권 12> 경찰폭력 "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"

제853호(97.3.29, 토) /167

- 1면 · 경기여상 사태 4주째, 교육청 짜맞추기 감사 의혹
 - '남한 인권' 외면한 인권운동가 해리우
 - 유엔인권위 웹사이트
- 2,3 · 3월호 총목차(834-853호)

제854호(97.4.1, 화) /173

- 1면 ·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고려,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
 - 민주여성 합본호 발간, 87-97년 한국여성운동사
- 2면 · 동티모르 독립요구 33명 전원 연행, 유엔특사에 6개항 요구서 전달
 - 전국연합 논평, "대북 식량지원 허용 환영"
 - 국제엠네스티 인턴 모집
 - 주간인권호름(3월 24-30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"인간이기를 포기"한 것은 누구인가?(서준식 대표)

제855호(97.4.2, 수) /176

- 1면 · 경찰, 민병일 씨 장례행렬 저지, 사건발생 두달째 검찰 수사 진척없어
 - 민병일씨 사건일지
 - 서래스님 안기부 구금, 회합·통신, 기밀누설 혐의
 - "정부 북한돕기 직접 나서야" 민변, 창구단일화 폐지 요구
- 2면 · 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
 - 하이텔 포커스 <핫 앤 쿨>, 인권하루소식 게재

제856호(97.4.3, 목) /178

- 1면 · 경기여상측 "사법처리가 능사", 교사·학생·학부모 고소고발 당해
 - 경기여상 사건일지
 - 장기수 진태윤 씨 운명
- 2면 · 제네바소식③ 제 53차 유엔인권위-"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"

제857호(97.4.4, 금) /180

- 1면 · 에바다 농아원생 농성 129일째, 이사진 교체 통한 학교 정상화 요구
 -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, 여성·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
- 2면 · '유럽노조' 건설을 위한 첫발, 영국GMB 독일 IG Chemie 조합원자격 공동인정
 - 과거청산국민위, 4·3제주항쟁 진상규명 촉구
 - <성명서> 4·3항쟁 49주년을 맞아 - 과거청산국민위원회

제858호(97.4.8, 화) /182

- 1면 · "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", 진관스님 4차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

- 경기여성 파행수업 지속, 학생측 “정상화대책 없어 등교 거부”
- 2면 · “전·노 사면론 불가”, 민변·과거청산위 등 주장
 - 고 유학성 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,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
 - 주간인권호름(3월 31일-4월 6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토지와 인권 (곽노현 방송대 교수)

제859호(97.4.9, 수) /185

- 1면 · 페스카마호 살인범 돕기운동 전개- 중국동포, 가족 입국 위해 모금 벌여
 - 전학련 회원 12명 연행
 - 국제앰네스티, 박창희·김하기 씨 석방촉구
 - 고문에 망가진 인생과 감춰진 진실-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보고사례
- 2면 · 제네바소식 ④ 특별보고관, 연세대에서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

제860호(97.4.10, 목) /187

- 1면 · 고려대 총학생회, “조선일보의 음해” 비난
 - 전학련 “이적단체 가입죄”, 회원 11명 장안동 분실 조사
- 2면 ·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⑦- 아브라함의 집(한국출소인 상담연구소) 이동숙 씨

제861호(97.4.11, 금) /189

- 1면 · 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선포식
 - 북녘동포돕기-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정부의 당연한 의무
- 2면 · 사회단체 대표들, 전·노 사면 반대 “사면권 행사, 정략에 따라선 안돼”
 -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짝살이, 지난달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
 - 인권영화 ③ 다민족의 공존문제를 다룬 <론스타>

제862호(97.4.12, 토) /191

- 1면 · “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없나”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...입국비용도 없어
 - “황장엽 망명 내년으로”, 재야인사 21명 요청
- 2면 · <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> “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먼저”
 - 새책 소개, 『5·18연구』 『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』

제863호(97.4.15, 화) /193

- 1면 · 페스카마호 사건,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- 부산지역 단체도 구명운동
 - <인터뷰> 조봉(조선족 변호사, 페스카마호 사건 특별변호인)
- 2면 · 사민청 6명 국보법 구속, 비상대책위 활동 발미
 - 대전충남연합 성명, “전·노 사면권 국민에게 있다”
 - 주간인권호름(4월 7-13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살맛나지 않는 세상(김동한 광주여대 교수)

제864호(97.4.16, 수) /196

- 1면 · 대학가 서점대표 3명 연행, 이적표현물 소지·판매 혐의
 - 원진 직업병 환자 24번째 사망, 원진전문병원 설립 협상 결렬
 - <현장방문> 원진 직업병 환자 입원한 서울기독병원
- 2면 · <페스카마호 사건 관련,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>

제865호(97.4.17, 목) /198

- 1면 · 원진 직업병 환자 농성 장기화, 16일 조병수 씨 장례식 치러
 - <페스카마호 사건 피고인 가족들의 애통하는 심정> “사고 소식에 빛 독촉 빗발
 - 고 유학성 씨 국립묘지 안장 규탄시위
 - 안기부 북한돕기 모금 방해- 전국연합, 직권남용 비판
- 2면 · 제네바 소식 ⑤ 4월 2주째- 분쟁지역 아동·아동매매준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

제866호(97.4.18, 금) /200

- 1면 · 도심 속에 갇힌 장애인 접근권, 장애인들 몸소 편의시설 실태조사
 - “사면논의 절대 반대”,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
 - 민변, 『새 노동법 해설』 발간
- 2면 · 경찰, 시위학생 총상 은폐 물의
 - 서점대표 구속, IS 문건 판매 이유- 합법출판물도 이적표현물 혐의
 - <현장스케치> 장애인들의 경북궁 나들이

제867호(97.4.19, 토) /202

- 1면 · 제주, ‘전자주민카드 전쟁’ 본격화-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
 - “김 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”,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
 - 페스카마호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, 항소심 재판부 “선상폭력 감안”
- 2면 · 시위학생 총상, 경찰 조준사격 탓- 천안경찰서 “근무수칙 지켰을 뿐”
 - <성명서> 12·12, 5·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!

제868호(97.4.22, 화) /204

- 1면 · 민언협, 동아일보 규탄 시위- 동아일보 18일자 사설 ‘전·노 사면’ 주장
 - 경기여성 파행 7주째, 교사·학생 “이젠 지쳤다”
 -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성명, “황비서 망명, 민족화해의 장애물이 않되길”
- 2면 · 경찰, 차량 안에 시민 불법 감금- 19일 부산역 집회서 ‘집시법 위반’ 이유
 - 사회복지정책의 실태’ 세미나
 - 주간인권호름(4월 14-20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‘인권이라는 것’에 대한 관심과 ‘인권’에 대한 관심(서준식 대표)

제869호(97.4.23, 수)

/206

- 1면 · 삶의 질 향상, 불평등 해소부터-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“사회복지는 기본권”
- 2면 ·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'Q채널 영화제'- 심의 여전... '영화진흥법' 문제점 노출
 - 인권영화 ④ 제르미날- 프랑스 노동자들의 피맺힌 함성

제870호(97.4.24, 목)

/208

- 1면 · 통신에서 꽃피는 동포사랑운동, '북한동포돕기 999운동'에 동참 호소
 - 사회단체 회원 연행 잇따라, 노정연 회원 4명 등 20일새 24명
 - “권 부총리 발언 근거대라” 국민회의, 황장엽 리스트 관련 논평
 - 여성계 717명 서명, “정부 즉각 북한식량 지원올!”
- 2면 · <자료 요약> 한국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(김창엽 서울대 의대 교수)

제871호(97.4.25, 금)

/211

- 1면 · “통제?”... “편의?”,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
 - ‘시위학생 총격 경찰’ 고발,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
- 2면 ·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 폐막

제872호(97.4.26, 토)

/213

- 1면 · ‘잠수함 사건 의혹제기’ 무죄선고, 서울지법 “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”
 - 서울대 학생연대 13명 연행, 국보법 7조 위반 혐의
 -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, 국보법 위반 1년 6월 선고
- 2면 · “시민의 공원, 시민 스스로 지킨다”, 능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달째
 -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,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
 - 한권의 책 『법은 무죄인가』

제873호(97.4.29, 화)

/215

- 1면 ·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 돌입, 황풍 우려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
 - 97년 주요 국보법 사건
 - 김세진 열사 11주기 추모예배
- 2면 · 황장엽 망명에 얽힌 의혹을 풀다, 통일시대국민회의 월례토론회
 - 한국교회여성연합회,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토론회
 - 주간인권호름(4월 21-27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(곽노현 교수)

제874호(97.4.30, 수)

/218

- 1면 · 살상도 불사한 시위진압, 직격탄 맞고 전남대생 두개골 함몰
 - <인터뷰>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- “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”
- 2면 · <쟁점>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- 시민사회단체 공동위 · 내무부 주장 비교

제875호(97.5.1, 목)

/223

- 1면 · 국적법에서도 차별받는 의노, 헌법·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
 - “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”, AI 한국지부와 NCC 등 공청회 개최
 - 전문 철거강패에 폭행당해 철거민연합 간부 3명 중상
- 2·3 · 4월호 총목차(875-894호)

제876호(97.5.2, 금)

/226

- 1면 · 공포에 짓눌리는 철거민, 용산구 산천동·도원동 개개발지구 철거폭력 극성
 - 삼성, 노조설립 저지 안간힘... 민주노총, 부당해고 철회 등 촉구
- 2면 ·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,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
 - 국제엠네스티 노동절 성명 “ILO조약 87, 98호 비준” 촉구
 - “조약을 중심으로 본 아이들의 인권” 어린이·청소년연대회의 출판기념회

제877호(97.5.3, 토)

/228

- 1면 · ‘아동 권리’ 스스로 깨닫게,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
 -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‘된통’,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
- 2면 · “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”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
 - 새책- 『정말이지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』 『처음처럼』 창간호(5-6월호)

제878호(97.5.7, 수)

/230

- 1면 · 검열 피해 ‘개구멍’ 찾기,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
- 2면 ·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침탈, 컴퓨터 파손·자료 검색 흔적
 - 전국연합 CUG 개설
 - 주간인권호름(4월 28일-5월 4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민주주의와 인권 - 김동한(광주여대 교수)

제879호(97.5.8, 목)

/232

- 1면 · 학보사 기자 ‘폭력시위자’로 돌변, “경찰의 협박·회유로 거짓진술했다”
- 2면 · “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” 민변·참여연대, 특검제 도입 토론회
 - <자료요약> 사형, 검증되지 않은 전통(오완호 AI 한국지부 사무국장)

제880호(97.5.9, 금)

/235

- 1면 · “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?” 5·18 학술심포지엄, 미국책임론 공방
 - 5·18 17주년 행사 7-25일, 피해자 치료센터 건립위한 토론회 열려
 - 경기여성 공동대책위 결성
- 2면 · 세계의 인권<13> 가정 - 물러앉은 아버지, 위기의 가정

제881호(97.5.10, 토)

/237

- 1면 ·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,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
 - 사회단체, “관선이사 파견” 주장 등 경기여성 정상화 촉구
 - 불심검문 제대로 압시다,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
- 2면 · <자료요약> 홍성담 씨 판결문(초안) 요지

제882호(97.5.13, 화)

/239

- 1면 ·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, 한·일 공동 ‘반환촉구’ 성명 채택
 - 학교를 학생에게” 통신상 서명운동 한창
- 2면 · 아프리카, 아동 성학대 심각
 - 온두라스, 고문가해자 은폐
 - 주간인권호름(5월 5-11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“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” 서준식(인권운동사랑방 대표)

제883호(97.5.15, 목)

/242

- 1면 ·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
 - 과거청산 국민위, 전·노 사면반대 1980인 선언과 인권피해 증언의 장
- 2면 · <현장스케치> 돼지처럼 쫓겨난 양돈마을 철거민들, 동아건설·적준개발 밀어붙이기 환관
 - 인권영화 ⑤ <꽃잎> <부활의 노래>- 5·18 영화의 민중적 방식

제884호(97.5.16, 금)

/244

- 1면 ·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, 5·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
 - “적선은 커녕 쪽박깨기”, 북한돕기문화공연 원천봉쇄
- 2면 · <판결문약>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, “맑스·레닌주의 저작, 이적표현물 아니다”
 - 국민인권기구 연구 본격화- 민주법연, 시민운동지원금 받아
 - 5월 항쟁복원, 과거청산부터 - 종교·사회단체 인사 1980인 선언

제885호(97.5.17, 토)

/246

- 1면 · 수원 원천철거지구 골리앗 투쟁 7개월째, 가수용단지 놓고 주택공사·철거민 대립
 - 류재을 씨 사인 끝내 못밝혀, 경찰 도청앞 노제 막아
 - 제7회 5·18 시민상 판노현 교수와 박연철 변호사 수상
- 2면 · 인천 중부서 항의집회 참가자 25명 또 연행,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시위 6명 구속
 - 새책 소개- 『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의 진상』 『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2』

제886호(97.5.20, 화)

/248

- 1면 · 여성인권 “아직도 멀었다” 여성단체,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
 - “진보적 국제소식 전달”, IPECK <아침세계소식> 발간
- 2면 · “5·18 문제 해결안됐다”,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

- 5·18 광주 방문기, 정부 5·18 기념식에 쫓겨난 사람들
- 주간인권호름(5월 12- 18일까지)

제887호(97.5.21, 수)

/251

- 1면 ·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, 천주교 인권위 “인도적 조치” 환영
 - 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
 - 언론 자료는 국가기밀 아니다, 진관스님 징역 3년6월 선고
- 2면 · 광주지역 80년 5월 방블, 류재을 장례투쟁 중상자 속출
 - 5·6공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
 - 대우, 멕시코 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유린 물의
 - 고문방지위원회, 18차 회기 마감

제888호(97.5.22, 목)

/253

- 1면 · 용기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, 5공 조작사건 희생자 『역사의 심판...』 출간
- 2면 · 인권영화⑥ <캐나다 베이컨> - 군산복합체, 독점자본에 대한 통쾌한 풍자
 - ‘제3자개입’ 부활 규탄 민주노총, 노동부 앞 항의집회

제889호(97.5.23, 금)

/255

- 1면 · 포철 범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,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
 -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
 - ‘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, 사위보장 촉구’ 집회
- 2면 · 5·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위한 토론회
 - “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”요구,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

제890호(97.5.24, 토)

/257

- 1면 ·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, 전국연합 ‘경찰폭력’ 추방 집회
 - 경찰, 고 류재을 씨 도청노제 끝내 불허
 - 97년 주요 경찰폭력 사건일지
 - 작가회의, 북녘동포돕기 행사
- 2면 · 여성환경선언 “제품 불매운동·정책참여” 요구
 - 새책 소개 『인권교육의 기법』 『청소년 인권보고서』

제891호(97.5.27, 화)

/259

- 1면 · 말 한마디에 입 메가는 세상, 한총련의장 통신 ID 사용중지
 - 경남노협 김윤규 의장 등 구속, “삼성노조 지원 차단 의도”
- 2면 ·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,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
 - 류재을 씨 죽음 의문사로 남아, 24일 망월동 구 묘역 안장
 - 주간인권호름(5월 19- 25일)

3면 · <인권시평>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, 김동한(광주여대 교수)

제892호(97.5.28, 수) /262

1면 · “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?” 6월항쟁 주역, 살인죄로 10년째 복역
2면 · 6월민주항쟁 10주년사업 주요행사
· 원천 철거지구 긴급상황, 경찰 외곽봉쇄 · 전기 차단
· 영흥도 주민 공권력과 대치,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

제893호(97.5.29, 목) /264

1면 · “정부, 해도 너무한다” 북 돕기운동 내사, “강력대응 불사”
· “불심검문 순순히 응하지 마세요” 이대 대동계 ‘불심검문 퍼포먼스’
·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강행과 주민 및 환경운동가 구속 규탄대회
2면 ·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⑧ 강인영(광주 인권지기 사무국장)

제894호(97.5.30, 금) /266

1면 · 방패도 두려워 않는 의기, 전경 불심검문 항의하는 여대생 폭행
· 원천 철거지구 고립 4일째, 초등학교 3일째 학교도 못가
· 노진추 울산지부 3명 연행,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
2면 · <‘유엔 어린이 · 청소년 권리조약’에 대한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>

제895호(97.5.31, 토) /268

1면 · 민노총 · 민교협 토론회 “삼성 변칙세습 추궁”
· 인권협 우도로조사단 “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” 계획
2,3 · 5월 총목차(875-895호)

제896호(97.6.3, 화) /273

1면 ·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6
· 경찰, 시위구경하던 시민 방패로 찍어, 두 개골 부숴져 입원...병실까지 찾아가 행패
2면 · <‘어린이 권리조약’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②> 국가위원회 설치
· 주간인권호름(5월 26일-6월 1일)
3면 · <인권시평>- 평등권의 재발견: 포르노에 대하여(서준식 대표)

제898호(97.6.4, 수) /276

1면 ·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, 사회단체 · 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
· <통신단체들의 반응> “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”
· 전국연합, 유지용 전경 죽음 애도 성명
2면 · <‘어린이 권리조약’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③>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
· 광주 정평위, 동티모르 지원사업 활발

· 원천 철거민 투쟁 마무리, 가수용단지 설치 결정

제898호(97.6.5, 목) /278

1면 · 언론, 또다시 광분- 전경사망 ‘의도적 오보’...경찰폭력엔 침묵
2면 · <‘어린이 권리조약’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④> 아동백서 작업 및 홍보사업
· 영흥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, 화력발전소 건설로 주민 생존권 위협
3면 · 한총련 발표 “프락치 조사과정서 사망했다”
· <자료> 한총련 기자회견문

제899호(97.6.7, 토) /281

1면 · 연세대 사태 여대생 성추행 사건, 항고이유서 제출
·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“김 대통령 퇴진, 보안법 철폐”
· 전국연합 애도성명, 한총련 자성...투명수사 당부
2면 · <‘어린이 권리조약’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>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(정연순 변호사)
· <‘어린이 권리조약’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최종회>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

제900호(97.6.10, 화) /283

1면 · 통신검열...검열철폐로!, 전국연합 · 민주노총, 손배소송 등 준비
· 자료-천리안에서 삭제당한 전국연합 게시물(주요내용 발췌)
2면 · “세계 여성장애인 한자리에” 「빛장」 등 12명 국제포럼 참가
· 주간인권호름(6월 2-8일)
3면 · <인권시평> 대선주자토론회 “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” (곽노현)

제901호(97.6.11, 수) /286

1면 · 재개발 지역, 집단폭행에 부녀자 성폭행까지
· 민변, ‘통신검열’ 비난,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촉구
· 박종철 열사 추모비 제막, 물고문 형상화
2면 · 열사 ·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
· 인권영화 ⑦ <산부인과>- “산부인과,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?”

제902호(97.6.12, 목) /288

1면 · 한총련 출범식 발미,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
·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, ‘전향거부, 준법정신 희박’ 사유
· 경찰폭행 중상입은 이철용 씨, 국군통합병원으로 강제이송
2면 · 부산 국민캡 택시노동자, 생존권 사수 투쟁
· <자료> 전국연합 성명서- “한총련과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중단되어야”

제903호(97.6.13, 금) /290

- 1면 ·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“사회복지, 국가가 맡아라”
· 고려대생 15명 긴급체포,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
· 한총련 ‘대선자금 공개요구’ 무기한 단식농성
- 2면 · <세계의 인권 14> 자유를 위한 맞섬, 언론인의 대가

제904호(97.6.14, 토) /292

- 1면 · 고려대 ‘구국선봉대 청년’ 20명 연행
· <현장스케치> 명동성당 한총련 단식농성장 “물 한 통만 들여보내 주세요”
- 2면 · 5·18 공대위, 총체적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열려
· 매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,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
· 새책소개- 『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』

제905호(97.6.17, 화) /294

- 1면 · 전자주민증 코 앞에, 어물쩍 국회통과 우려
- 2면 · 인권협동 유엔 탈식민지위원회에 ‘동티모르 민족자결권 촉구’
· 재일동포 전후배상문제 해결해야, 인권협 우토로마을 서명작업
· 주간인권호름(6월9-15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(김동한 광주여대 교수)

제906호(97.6.18, 수) /297

- 1면 · 국제엠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...악법도, 양심수도 여전
· 경기여성 임시이사 파견, 현 임원진 전원 승인취소
- 2면 · <기획: 안기부와 인권> ① 중앙정부부의 탄생

제907호(97.6.19, 목) /299

- 1면 · 동성애자들, 일본대사관 앞 시위- 구별은 OK, 차별은 NO
· 남총련 “치사사건 책임지겠다”, 이 씨 ‘프락치’ 고백사실 공개
· 평택노점상 생명위독, 철거과정에서 중화상
- 2면 ·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- 김학철(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)

제908호(97.6.20, 금) /301

- 1면 · 여성단체, 19-20일 국제여성 심포지엄
· 심포지엄 참석자중 독일발표 요지 “통일이 동독여성의 권리를 후퇴시켰다”
- 2면 · NCC 언론위 북한관련 보도 실태 모니터, 지능적 오보, 통일 가로막는 통일프로그램
· 전국연합, 기무사 민간인 사찰 관련 책임자 처벌 촉구
· 인권영화 ⑧- 송가황조 “역사는 그녀들에게 무엇이었나”

제909호(97.6.21, 토) /303

- 1면 · 경찰, 이철용 씨 간병인 출석요구...NCC, 이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
· 한국노동청년연대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
· ‘구국선봉대- 청년’ 조직사건, 서울경찰청 발표에 대한 고대총학생회 반박문
- 2면 · 노점상 양승진 씨 뇌사상태...경찰, 동향파악이 우선
· 새책 소개 『여성, 그리고 노동자』 『꺼지지 않는 자주의 빛으로 살아』

제910호(97.6.24, 화) /305

- 1면 · 한총련 사태 언론보도 비판, 공안보도 극치
· 부산대등 9명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
· 범민련 사무처장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
· 민족민주열사·희생자 기념실 판매
- 2면 · <인터뷰> 동티모르 여성 독립운동가 이네스 알메이다 씨
· 주간인권호름(6월16-20일)
- 3면 · <인권시평> 한총련 사태를 보며-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(서준식 대표)

제911호(97.6.25, 수) /308

- 1면 · 장마시작...철거민 신음 쏟아져, 문정동·산천동 철거민 9가구
· 탈영 전투경찰 번사체 발견, 유족등 타살주장
· 평택노점상 양승진 씨 사망, 비상대책위 ‘살인방화’로 규정
- 2면 · <기획: 안기부와 인권> ② 안기부의 역사 “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”

제912호(97.6.26, 목) /310

- 1면 ·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파문확산, 민주노총 총력대응
· 전북지역 대학생 30명 국보법 무더기 연행
- 2면 · 한국도시연구소등, 무주거자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

제913호(97.6.27, 금) /312

- 1면 · 동성애자모임, 성교육 교과서 개정촉구
· 대법원,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“비전향사범, 감호처분 타당”
· 변사 이승호 씨 장례 치러
- 2면 · <기획: 안기부와 인권> ③ 안기부의 피해자 - 안기부를 뺄 때는 피해자들의 한

제914호(97.6.28, 토) /314

- 1면 · 제2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, 5공 조작사건 피해자 “역사적 재평가, 과거청산”촉구
· 국방부, 관련법규 무시하고 전두환 씨 등의 5·18 서훈 박탈 않기로
2,3·6월 총목차(896-914호)

<인권하루소식> 97년 6월분 총목차(896-914호)

호	월일	면	기 사 제 목
905	6/17	1	전자주민증 코 앞에, 어물쟁 국회통과 우려/주요공판안내
		2	인권협동 유엔 탈식민지위원회에 '동티모르 민족자결권 촉구'/재일동포 전후배상문제 해결해야, 인권협 우토로마을 서명작업/주간인권호름(6월9일부터 15일까지)
		3	<인권시평>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(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, 광주여대 교수)
906	6/18	1	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...악법도, 양심수도 여전/경기여성 임시이사 파견, 현 임원진 전원 승인취소
		2	<기획: 안기부와 인권>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- 국민을 가상 '적'으로 삼고 탄생한 증정
907	6/19	1	동성애자들, 일본대사관 앞 시위- 구별은 OK, 차별은 NO/ 남총련 "치사사건 책임지겠다", 이 씨 '프락치' 고백사실 공개/평택노점상 생명위독, 철거과정에서 중화상
		2	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- 김화철(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) "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"
908	6/20	1	여성단체, 19-20일 국제여성 심포지엄/심포지엄 참석자중 독일발표 요지 "통일이 동독여성의 권리를 후퇴시켰다"
		2	NCC 언론위 북한관련 보도 실태 모니터, 지능적 오보, 통일 가로막는 통일프로그램/전국연합, 기무사 민간인 사찰 관련 책임자 처벌 촉구/인권영화 ⑧- 송가황조 "역사는 그녀들에게 무엇이었나"
909	6/21	1	경찰, 이철용 씨 간병인 출석요구...NCC, 이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/한국노동청년연대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/'구국선봉대- 청년' 조직사건, 서울경찰청 발표에 대한 고려대총학생회 반박문
		2	노점상 양승진 씨 뇌사상태...경찰, 동향파악이 우선/새책 소개 『여성, 그리고 노동자』 『꺼지지 않는 자주의 빛으로 살아』
910	6/24	1	한총련 사태 언론보도 비판, 공안보도 극치/부산대등 9명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/범민련 사무처장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/민족민주열사·희생자 기념일 판매/주요공판안내
		2	<인터뷰> 동티모르 여성 독립운동가 이네스 알메이다 씨 "동티모르 여성, 일본군 위안부의 흡사"/주간인권호름(6월16일부터 20일까지)
		3	<인권시평> 한총련 사태를 보며-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(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)
911	6/25	1	장마시작...철거민 신음 쏟아져, 문정동·산천동 철거민 9가구/탈영 전투경찰 변사체 발견, 유족등 타살주장/평택노점상 양승진 씨 사망, 비상대책위 '살인방화'로 규정
		2	<기획: 안기부와 인권> ② 안기부의 역사 "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"
912	6/26	1	한국타이어 노동탄압 파문확산, 민주노총 총력대응/전북지역 대학생 30명 국보법 무더기 연행/주요공판안내
		2	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"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, 사회보장책 마련돼야"/행사과 동정
913	6/27	1	동성애자모임, 성교육 교과서 개정촉구/대법원,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"비전향사범, 감호처분 타당"/변사 이승호 씨 장례 치러
		2	<기획: 안기부와 인권> ③ 안기부의 피해자 - 안기부를 뺄도는 피해자들의 한
914	6/28	1	제2회 인권피해 증인의 장, 5공 조작사건 피해자 "역사적 재평가, 과거청산"촉구/국방부, 관련법규 무시하고 전두환 씨 등의 5·18 서훈 박탈 않기로
		2·3	6월 총목차(896-914호)

인권하루소식

합본 8호 색인

(제797호 - 제914호)

<색인순서>

320 /1 고문 및 가혹수사 - <유엔고문방지위원회>

320 /2 과거청산/불처벌 - <5·18 재판> <일본군 위안부>→<여성> <의문사> <4·3>

321 /3 교육/학원 - <경기여상> <용인대 한상근 씨 사망사건> <전교조>

322 /4 국가폭력 - <김형찬 씨 사건> <도청·사찰등 사생활침해> <불법수사/경찰폭력> <불심검문> <안기부> <안기부법 개악 기도> <연세대 사태> <연세대 사태 여학생 성추행>→<여성> <제5기 한총련 출범식> <프락치사건>

325 /5 국가보안법 - <97 상반기 조직사건> <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> <박충렬·김태년 씨/간첩 김동식 사건 및불고지 사건> <범민련> <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구속> <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> <윤석진 씨 사건> <홍성담 씨 사건> <황장엽 관련 사건>

327 /6 국제 - <국제엠네스티/AI 한국지부> <동티모르> <재일동포 우토로마을> <유엔 및 제53차 유엔인권소위원회>

329 /7 노동 - <교원노동권>→<전교조> <노동법 개정투쟁> <노조탄압> <민주노총> <산업재해/원진레이온> <외국인노동자>

332 /8 동성애자

332 /9 미군범죄 - <에바다 농아원>

332 /10 민간단체 - <민주노총>→<노동> <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> <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> <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> <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> <불교인권위원회> <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/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> <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> <천주교인권위원회> <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/한국교회인권센터> <한국여성단체연합> <한국인권단체협의회>

335 /11 북한 - <북한동포돕기>

335 /12 사법·판결 - <영장실질심사제>

335 /13 사회복지

336 /14 양심수 - <보안관찰법/사회안전법>

336 /15 어린이·청소년 - <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>

337 /16 여성 - <성폭력/성추행> <연세대사태 여대생 성추행 사건> <일본군 위안부>

337 /17 인권교육 - <기획시리즈: 세계의 인권>

338 /18 인권일반 - <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> <6·10> <인권시평> <인권영화> <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> <전자주민카드>

339 /19 장애인

340 /20 정보통신 - <윤석진 씨 사건>→<국가보안법> <전기통신사업법/통신검열>

340 /21 주거권 - <평택노점상 양승진 씨 사망사건>

341 /22 의사·표현의 자유 - <언론·출판> <집회·시위>

341 /23 행정 - <의료> <페스카마호 사건/사형제도>

342 /24 환경 - <영흥도화력발전소 반대운동>

343 /25 기타 - <인권간행물> <월 총목차> <주간인권호름>

1. 고문 및 가혹수사

-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/97.2.15 2 824 / 100
-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보고사례/97.4.9 1 859 / 185
- 온두라스, 고문가해자 은폐/97.5.13 2 882 / 240
- 박종철 열사 추모비 제막, 물고문 형상화/97.6.11 1 901 / 286

<유엔 고문방지위원회>

- 고문방지위원회, 18차 회기 마감/97.5.21 2 887 / 252

2. 과거청산/불처벌

-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, "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"/97.1.16 2 804 / 56
- 5공 조작사건 희생자 『역사의 심판...』 출간/97.5.22 1 888 / 253
- 민족민주열사·희생자 기념실 판매/97.6.24 1 910 / 305

<5·18 재판>

- 민족민주열사·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 학술회의/97.3.8 1 838 / 132
- 고 유학성 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, 대전충남연합 성명/97.4.8 2 858 / 183
- "전·노 사면론 불가", 민변·과거청산위 등 주장/97.4.8 2 858 / 183
- 사회단체 대표들, 전·노 사면 반대/97.4.11 2 861 / 190
- 대전충남연합 성명, "전·노 사면권 국민에게 있다"/97.4.15 2 863 / 195
- 고 유학성 씨 국립묘지 안장 규탄시위/97.4.17 1 865 / 198
- "사면논의 절대 반대",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/97.4.18 1 866 / 200
-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/97.4.19 1 867 / 202
- <성명서> 12·12, 5·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!/97.4.19 2 867 / 203
- 민언협, 동아일보 규탄 시위- 동아일보 사설 '전·노 사면' 주장/97.4.22 1 868 / 204
- 5·18 17주년 행사, 피해자 치료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열려/97.5.9 1 880 / 235
- 5·18 학술심포지엄, 미국책임론 공방/97.5.9 1 880 / 235
- 과거청산국민위, 전·노 사면반대 1980인 선언과 인권피해 증언의 장/97.5.15 1 883 / 242

-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, 5·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/97.5.16 1 884 / 244
- 5월 항쟁복원, 과거청산부터 - 종교·사회단체 인사 1980인 선언/97.5.16 2 884 / 245
- 광노현 교수와 박연철 변호사 제7회 5·18 시민상 수상/97.5.17 1 885 / 246
- "5·18 문제 해결안됐다",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/97.5.20 2 886 / 249
- 5·18 광주 방문기, 정부 5·18 기념식에 쫓겨난 사람들/97.5.20 2 886 / 249
- 5·6공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/97.5.21 2 887 / 252
- 5공 조작사건 희생자 『역사의 심판...』 출간/97.5.22 1 888 / 253
- 5·18 재향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/97.5.23 2 889 / 256
- 열사·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/97.6.11 2 901 / 287

- 5·18 공대위, 총체적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열려/97.6.14 2 904 / 293
- 제2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, 5공 피해자 "과거청산" 촉구/97.6.28 1 914 / 314
- 국방부, 전두환 씨 등 5·18 서훈 박탈 않기로/97.6.28 1 914 / 314

<일본군위안부> → <여성>

<의문사>

- 탈영 전투경찰 변사체 발견, 유족등 타살주장/97.6.25 1 911 / 308
- 변사 이승호 씨 장례 치러/97.6.27 1 913 / 312
- ① 류재을 씨 사망사건
 - 조선대생 시위도중 사망!!- 병원측, "아직 드러난 외상 없어"/97.3.21 1 847 / 154
 - 광주 류지을 씨 대책위 결성 "류 씨, 시커먼 물체에 맞았다"/97.3.22 1 848 / 156
 - 고 류재을군 대책위 기자회견 "사인 규명·경찰청장 해임"/97.3.26 1 850 / 161
 - 류재을 씨 사인 끝내 못밝혀, 경찰 도청앞 노제 막아/97.5.17 1 885 / 246
 - 광주지역 80년 5월 방불, 류재을 씨 장례투쟁 중상자 속출/97.5.21 2 887 / 252
 - 경찰, 고 류재을 씨 도청노제 끝내 불허/97.5.24 1 890 / 257
 - 류재을 씨 죽음 의문사로 남아, 24일 망월동 구 묘역 안장/97.5.27 2 891 / 260

<4·3>

- <성명서> 4·3항쟁 49주년을 맞아-과거청산국민위/97.4.4 2 857 / 181
- 과거청산국민위, 4·3제주항쟁 진상규명 촉구/97.4.4 2 857 / 181

3. 교육·학원

-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,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/97.1.24 1 810 / 67
- 경찰 학원난입, 방치할 것인가?...학생은 무대응, 학교는 수수방관/97.3.6 1 836 / 187
- "학교를 학생에게" 통신상 서명운동 한창/97.5.13 1 882 / 239

<경기여상>

- 경기여상 12일째 수업거부...학생·교사, 재단비리 척결 요구/97.3.22 1 848 / 156
- 닫힌 교문을 여는 경기여상 학생들/97.3.25 2 849 / 159
- 경기여상측, 학생·교사 고발/97.3.26 1 850 / 161
- 경기여상 사태 4주째, 교육청 짜맞추기 감사 의혹/97.3.29 1 853 / 167
- 경기여상 사건일지/97.4.3 1 856 / 178
- 경기여상측, 교사·학생·학부모 고소고발/97.4.3 1 856 / 178
- 경기여상 파행수업 지속, 학생측 "정상화 대책없어 등교 거부"/97.4.8 1 858 / 182
- 경기여상 파행 7주째, 교사·학생 "이젠 지쳤다"/97.4.22 1 868 / 204
- 경기여상 공동대책위 결성/97.5.9 1 880 / 235
- 사회단체, "관선이사 파견" 주장 등 경기여상 정상화 촉구/97.5.10 1 881 / 237
- 경기여상 임시이사 파견, 현 임원진 전원 승인취소/97.6.18 1 906 / 297

<용인대 한상근 씨 사망사건>

- 용인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분신, 분신사유는 '학원자주화·사회민주화'/'97.2.12 1 821 / 93
- 용인대 한상근 씨 숨져, 대책위 "학교측 공식사과" 요구/'97.2.15 1 824 / 99
- 용인대생 한상근 씨가 남긴 글/'97.2.15 2 824 / 100
-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, 이종호·한상근 씨 장례 치러/'97.2.18 2 825 / 102

<전교조>

- "교원단결권 기필코 쟁취한다", 전교조 16개 시도 추진본부 결성/'97.2.6 2 819 / 90
- 교사단결권, 전세계 합의사항-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/'97.2.18 1 825 / 101
- <자료>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/'97.2.20 2 827 / 106
- 참교육·교원노동권 깃발 펴- 전교조 1천5백명 여의도 집회/'97.2.25 2 830 / 112
- 교육청, 학교마다 자술서 요구, 전교조 가입경위 조사/'97.3.5 1 835 / 124
- 새 노동법, 노조 발목기 성공... 파업권 현저히 제한/'97.3.11 1 839 / 134
- 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/'97.5.21 1 887 / 251
- "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" 요구,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/'97.5.23 2 889 / 256

4. 국가폭력

<김형찬 씨 사건>

- 김형찬 교문수사관 처벌 촉구, 전국 주요도시 안기부 앞 항의시위/'97.1.29 1 813 / 73
- 인권협, 김형찬 씨 진상조사결과 공개 촉구/'97.2.1 1 816 / 83

<도청·사찰등 사생활침해>

-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침탈, 컴퓨터 파손·자료 검색 흔적/'97.5.7 2 878 / 231
- 전국연합, 기무사 민간인 사찰 관련 책임자 처벌 촉구/'97.6.20 2 908 / 302

<불법수사/경찰폭력>

- 경찰 대낮 8차선 점거, 도심지 교통마비/'97.1.9 1 799 / 44
- 경찰폭력진압으로 부상속출, 노동자·학생 도심 가두시위/'97.1.10 2 800 / 47
- 경찰, 병원노련 압수수색 과정서 성추행/'97.1.11 2 801 / 49
- 경찰 보복적 폭력행위, 국민회의 대전지부/'97.1.17 2 805 / 58
- 경찰폭행당한 뇌성마비 장애인, 1년 지나도록 병상에/'97.2.19 1 826 / 103
- "경찰폭력 반대의 날 갖자" 캐나다 민간단체, 국제행사 제안/'97.2.26 1 831 / 113
- 경기대 난입...개폐듯 패놓고 무협의 석방/'97.2.27 1 832 / 115
- 경찰폭력 반대의 날, 15개국 40여 단체 참가/'97.3.5 1 835 / 124
- 경찰 학원 난입, 방치할 것인가?...학생은 무대응, 학교는 수수방관/'97.3.6 1 836 / 127
- 기무사,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, 대전교도소 정화려 씨/'97.3.25 1 849 / 158
- 정화려 씨 고소장 접수/'97.3.27 1 851 / 163
- <세계의 인권 12> 경찰폭력 "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"/'97.3.28 2 852 / 166
- 경찰, 시위학생 총상 은폐 물의/'97.4.18 2 866 / 201

- 시위학생 총상- 천안경찰서 "근무수칙 지켰을 뿐"/'97.4.19 2 867 / 203
- '시위학생 총격 경찰' 고발,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/'97.4.25 1 871 / 211
- 살상도 불사한 시위진압, 직격탄 맞고 전남대생 두개골 함몰/'97.4.30 1 874 / 218
- 학보사 기자 '폭력시위자'로 돌변/'97.5.8 1 879 / 233
- '경찰폭력 추방과 평화적인 집회, 시위보장 촉구' 집회/'97.5.23 1 889 / 255
-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, 전국연합 '경찰폭력' 추방 집회/'97.5.24 1 890 / 257
- 97년 주요 경찰폭력 사건일지/'97.5.24 1 890 / 257
- 경찰폭행 중상입은 이철용 씨, 국군통합병원으로 강제이송/'97.6.12 1 902 / 288

① 이종호, 민병일 씨 사망사건

- "뒤로 넘어지더니 이마 함몰됐다",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의혹투성/'97.2.5 2 818 / 88
- 노점상 민병일·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/'97.2.12 1 821 / 24
- 노점상 이종호 씨 사망, '뇌출혈' 추가 발견/'97.2.15 1 824 / 99
-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, 이종호·한상근 씨 장례 치러/'97.2.18 2 825 / 102
- 노점상 이종호 씨 사건 불공정수사 우려/'97.2.19 1 826 / 103
- 민병일 씨 진상조사위원회, '앞이마에 강한 충격' 확인/'97.2.20 1 827 / 105
- 노점상 중요집회, "민병일 씨 사건 수사 지지부진"/'97.3.8 2 838 / 133
- 경찰폭행으로 사망한 이종호 씨 유족, 손해배상 소송 제기/'97.3.11 2 839 / 135
- 민병일 씨 가족, 민·형사 소송 제기/'97.3.20 1 846 / 152
- 민병일 씨 사건일지/'97.4.2 1 855 / 176
- 경찰, 민병일 씨 장례저지, 사건발생 두달째 검찰 수사 진척없어/'97.4.2 1 855 / 176

② 이철용 씨 사건

- 경찰, 시위구경하던 시민 방패로 찍어, 두 개골 부숴져/'97.6.3 1 896 / 273
- 경찰폭행 중상입은 이철용 씨, 국군통합병원으로 강제이송/'97.6.12 1 902 / 188
- 경찰, 이철용 씨 간병인 출석요구...NCC, 진상규명 촉구/'97.6.21 1 909 / 303

<불심검문>

- 불심검문 제대로 압시다,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/'97.5.10 1 881 / 273
- 이대 대동계 '불심검문 퍼포먼스'/'97.5.29 1 893 / 188
- 진경,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여대생 폭행/'97.5.30 1 894 / 266

<안기부>

- 종교계 공작·사찰 예외 아니다/'97.1.23 1 809 / 65
- 전국연합, 안기부 정치공작 의혹 지적/'97.1.25 2 811 / 70
- 안기부법 무효화 불투명, 24일 노동법안 심의/'97.2.22 1 829 / 109
-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/'97.3.14 1 842 / 141
- "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", 강병연 씨 주장/'97.4.8 1 858 / 182
- 안기부 북한돕기 모금 방해- 전국연합, 직권남용 비판/'97.4.17 1 865 / 198

① 안기부 기획시리즈-〈안기부와 인권〉

-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- 국민을 가상 '적'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/'97.6.18 2 906 / 298
- ② 안기부의 역사 "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"/'97.6.25 2 911 / 309

· ③ 안기부의 피해자 -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/97.6.27 2 913 / 313

<안기부 개악 기도>

- 사회·시민단체, 대통령회전 일제히 규탄/97.1.8 1 798 / 42
-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,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/97.1.8 2 798/ 43
- 김대통령에 항의엽서 보내기, 3일 동안 9백명 참여/97.1.9 2 799 / 45
- 전국 8백여 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, 노동·민주진영 총집결/97.1.11 1 801 / 48
- <인터뷰> 이민섭 김형찬대책위 상황실 차장/97.1.15 1 803 / 53
- 전국 변호사 554명, "날치기처리 원천무효"/97.1.16 2 804 / 56
- 창원지법,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/97.1.17 1 805 / 57
- 폭행현장 목격환 외신기자를 찾습니다/97.1.17 1 805 / 57
- 통신서명 5천명 돌파/97.1.17 2 805 / 58
- 신한국당 TV토론 거부, 여론호도용 정치쇼 스스로 입증/97.1.18 1 806/ 59
- 민주노총·범대위, 노동법·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/97.1.21 2 807 / 62
- 국제엠네스티·휴먼라이츠워치, 안기부법·노동법 항의/97.1.22 2 808 / 64
- 전국교수 농성돌입, 악법철폐 및 재개정 촉구/97.1.28 1 812 / 71
- 유권자 75명, 날치기 주역 검찰고발/97.1.28 1 812 / 71
- 시민헌법재판, "날치기 노동법·안기부법 위헌"/97.1.31 1 815/ 77
- 예장총회, 날치기 무효화 시국선언/97.1.31 1 815 / 77
- 전국시국선언자대회, 노동법 재개정 촉구/97.2.21 2 828 / 108
- "날치기 원천무효" 범대위 총력투쟁/97.2.25 1 830 / 111
- "안기부 개혁 필요" 74.2%- 인권협등 7백여 명 설문조사/97.2.25 1 830 / 111
- 김 대통령 '말로만' 반성,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/97.2.26 1 831 / 113
- 51만여 명 서명 참여, '날치기 무효' 국회청원/97.2.26 1 831 / 113
- 전국연합, 안기부 기밀유출 규탄·안기부법 재논의 촉구 /97.3.4 2 834/ 122
- 범대위 자료집 판매/97.3.4 2 834 / 122
- 사회 각계, 헌법재판소 위헌평결 촉구/97.3.8 1 838 / 132
- 민가협 정기총회서 날치기법 철폐 결의/97.3.8 2 838 / 133
- 현재 공개변론서,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"날치기 정당했다"/97.3.12 1 840 / 137
- 법학교수, 현재 판단 촉구/97.3.12 1 840 / 137
- 광기와 이성의 대결 '안기부법 국회 공청회'/97.3.13 1 841 / 139
-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/97.3.14 1 842 / 141
-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/97.3.14 1 842 / 141
- 전국연합 이 대표에 공개 선한 "날치기법 소신 밝혀라"/97.3.15 1 843 / 144
- 427개 통신동호회 "안기부법 반대"/97.3.15 1 843 / 144

① 공안정보기구 관련 국제심포지엄

-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/97.2.21 1 828 / 107
-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, 국제심포지엄 개최/97.2.21 2 828 / 108
- <발제문>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-마르틴 쿛차/97.2.27 2 832 / 116
-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,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 개최/97.2.28 1 833 / 117

- FBI의 정치사찰, CIA의 해외개입증지를 위한 투쟁(키드 게이저)/97.3.6 3 836 / 129
- <자료>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(그레고리 노집 변호사)/97.3.6 3 836 / 129
- <서독 정보기구> 너무도 흡사한 피해 이야기/97.3.7 1 837 / 130
- <자료> "헌법보호청" 독일 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/97.3.7 2 837/ 131
- <자료> "국가 속의 국가" 구동독의 슈타지 체제/97.3.12 2 840 / 138
- <자료> 안기부의 수사권·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현황과 과제(박연철 변호사)/97.3.15 2 843 / 145
- <자료>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투쟁 전망(곽노현 교수)/97.3.15 3 843 / 146

<연세대 사태>

-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징역 10-4년 구형/97.1.25 1 811 / 69
-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(요약)/97.1.25 1 811 / 69
- 한총련 의경치사사건 선고/97.2.6 2 819 / 80

<연세대 사태 여학생 심추행> → <여심>

<제5기 한총련 출범식>

- 전국연합, 유지용 전경 죽음 애도 성명/97.6.4 1 897/ 276
- 언론, 또다시 광분- 전경사망 '의도적 오보'...경찰폭력엔 침묵/97.6.5 1 898 / 278
- <자료> 한총련 기자회견문/97.6.5 3 898 / 280
- 한총련 발표 "프락치 조사과정서 사망했다"/97.6.5 3 898 / 280
- 전국연합 애도성명, 한총련 자성...투명수사 당부/97.6.7 1 899 / 281
- 한총련 출범식 빌미,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/97.6.12 1 902 / 288
- <성명> 전국연합 "한총련과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 중단되어야"/97.6.12 2 902 / 289
- 한총련 '대선자금 공개요구' 무기한 단식농성/97.6.13 1 903 / 290
- <현장스케치> 명동성당 한총련 단식농성장/97.6.14 1 904 / 292
- 남총련 "치사사건 책임지겠다", 이 씨 '프락치' 고백사실 공개/97.6.19 1 907 / 299
- 한총련 사태 언론보도 비판, 공안보도 극치/97.6.24 1 910 / 305

<프락치 사건>

- 고려대 직원, 프락치 의혹 ... 수위실에 학생회 관련자료 보관/97.3.11 1 839 / 134
- 한총련 발표 "프락치 조사과정서 사망했다"/97.6.5 3 898 / 280
- <자료> 한총련 기자회견문/97.6.5 3 898 / 280
- 남총련 "치사사건 책임지겠다", 이 씨 '프락치' 고백사실 공개/97.6.19 1 907 / 299

5. 국가보안법

- 류세홍 씨 가족,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/97.2.22 1 829 / 109
- <자료>구국전위 이광철씨 판결문 "공지사실, 국가기밀누설 적용안돼"/97.2.26 2 831 / 114
- 불교인권위 서래스님 연행/97.3.28 1 852 / 165
- 서래스님 안기부 구금, 회합·통신, 기밀누설 혐의/97.4.2 1 855 / 176

- 국제엠네스티, 박창희·김하기 씨 석방촉구/97.4.9 1 859 / 155
- 대학가 서점대표 3명 연행, 이적표현물 소지·판매 혐의/97.4.16 1 864 / 196
- 대학가 서점대표 3명 연행, 이적표현물 소지·판매 혐의/97.4.16 1 864 / 196
- 서점대표 구속, IS 문건판매 이유-합법출판물도 이적표현물 혐의/97.4.18 2 866 / 201
-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, 국보법 위반 1년 6월 선고/97.4.26 1 872 / 213
- 97년 주요 국보법 사건/97.4.29 1 873 / 215
-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'된통',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/97.5.3 1 877 / 228

<97 상반기 조직사건>

- '빛나는 전망' 3명 연행, 국보법 위반/97.3.4 2 834 / 122
-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, 전주대생 4명 구속/97.3.26 1 850 / 161
- 사회단체 회원 연행 잇따라, 노정연 회원 4명 등 20일 동안 24명/97.4.24 1 870 / 209
- 서울대 학생연대 13명 연행, 국보법 7조 위반 혐의/97.4.26 1 872 / 213
- 한국노동청년연대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/97.6.21 1 909 / 303
- 부산대등 9명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/97.6.24 1 910 / 305
- 전북지역 대학생 30명 국보법 무더기 연행/97.6.26 1 912 / 400

①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

- 사민청 회원 9명 연행, 94년에도 '이적단체' 혐의 처벌/97.3.19 1 845 / 150
- 사민청 14명 연행·구속, 3년만에 같은 혐의로 재구속/97.3.20 1 846 / 152
-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싸늘이, 지난달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/97.4.11 2 861 / 190
- 사민청 6명 국보법 구속, 비상대책위 활동 빌미/97.4.15 2 863 / 194

② 고려대 구국선봉대 '청년'

- 고려대생 15명 긴급체포,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/97.6.13 1 903 / 290
- 고려대 '구국선봉대 청년' 20명 연행/97.6.14 1 904 / 292
- '구국선봉대-청년' 조직사건, 경찰청 발표에 대한 반박문/97.6.21 1 909 / 303

③ 전학련

- 전학련 회원 12명 연행/97.4.9 1 859 / 185
- 전학련 "이적단체 가입죄", 회원 11명 장안동 분실 조사/97.4.10 1 860 / 187

<노동자증심의 진보정단추진위원회>

- 노진추 울산지부 3명 연행,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/97.5.30 1 894 / 266

<박충렬·김태년 씨/간첩 김등식 사건 및 불고지 사건>

- '불고지' 재판 김등식 진술 오락가락,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/97.1.15 1 803 / 53

<범민련>

- '잠수함 사건' 의혹제기 또 구속,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위반 혐의/97.3.4 1 834 / 121
- 범민련 사무처장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/97.6.24 1 910 / 305

<불고인권위 진관스님 구속>

- 진관스님 1차공판 열려/97.2.15 1 824 / 99
- "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", 강병연 씨 주장/97.4.8 1 858 / 182
- "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"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/97.5.3 2 877 / 229
- 언론 자료는 국가기밀 아니다, 진관스님 징역 3년6월 선고/97.5.21 1 887 / 251

<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>

- 애청 이원영 씨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/97.1.16 1 804 / 55

<윤석진 씨 사건>

- 윤석진, 홍성담 씨 선고재판 연기/97.1.18 1 806 / 59
- '잠수함 사건 의혹제기' 무죄선고, 서울지법 "레닌저작선동 이적성 없다"/97.4.26 1 872 / 213
- <인터뷰>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/97.4.30 1 874 / 218
- <자료> 윤석진씨 무죄판결문, "맑스·레닌주의 저작, 이적표현물 아니다"/97.5.16 2 884 / 245

<홍성담 씨 사건>

- 윤석진, 홍성담 씨 선고재판 연기/97.1.18 1 806 / 59
-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,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/97.5.10 1 881 / 237
- <자료요약> 홍성담 씨 판결문(초안) 요지/97.5.10 2 881 / 238

<황장엽 관련 사건>

- "황장엽 망명 내년으로", 재야인사 21명 요청/97.4.12 1 862 / 191
- 정의구현사제단, "황비서 망명, 민족화해의 장애물이 안되길"/97.4.22 1 868 / 204
- "권 부총리 발언 근거 대라" 국민회의, 황장엽 리스트 관련 논평/97.4.24 1 870 / 209
- 황장엽 망명에 얽힌 의혹을 풀다, 통일시대국민회의 월례토론회/97.4.29 2 873 / 216

6. 국제

-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,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/97.2.4 1 1 817 / 75
- "경찰폭력 반대의 날 갖자" 캐나다민간단체, 국제행사 제안/97.2.26 1 831 / 113
- 경찰폭력 반대의 날, 15개국 40여 단체 참가/97.3.5 1 835 / 124
- 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/97.4.2 2 855 / 177
- '유럽노조' 건설을 위한 첫발, 영국GMB 독일 IG Chemie 조합원자격 공동인정/97.4.4 2 857 / 181
- 아프리카, 아동 성학대 심각/97.5.13 2 882 / 240
- 온두라스, 고문가해자 은폐/97.5.13 2 882 / 240
- 영국 국가정보기관노조 복원허용,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/97.5.27 2 891 / 260

<국제엠네스티/AI 한국지부>

- 국제엠네스티·휴먼라이츠워치, 안기부법·노동법 항의/97.1.22 2 808 / 64
- AI 한국지부, 세계여성의 날 성명/97.3.8 2 838 / 133
- AI, 사형집행 중단 촉구 "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"/97.3.19 1 845 / 151
- '남한 인권' 외면한 인권운동가 해리우/97.3.29 1 853 / 167

- 국제앰네스티 인턴 모집/97.4.1 2 854 / 174
- 국제앰네스티, 박창희·김하기 씨 석방촉구/97.4.9 1 859 / 185
- “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”, AI 한국지부와 NCC 등 공청회 개최/97.5.1 1 875 / 223
- 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“ILO조약 87, 98호 비준” 촉구/97.5.2 2 876/ 227
- <자료요약> 사형, 검증되지 않은 전통(오완호)/97.5.8 2 879 / 234
-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...악법도, 양심수도 여전/97.6.18 1 906 / 297

<동티모르>

- 인도네시아 정부, 동티모르 시위대에 발포 사망 2명 부상 38명/97.3.25 1 849 / 158
- 동티모르 시위대 7명 사망설/97.3.27 2 851/ 155
- 동티모르 독립요구 33명 전원 연행, 유엔특사에 요구서 전달/97.4.1 2 854 / 174
- 광주 정평위, 동티모르 지원사업 활발/97.6.4 2 897 / 277
- 인권협등 유엔 탈식민지위원회에 ‘동티모르 민족자결권 촉구’/97.6.17 2 905 / 295
- 여성단체, 19-20일 국제여성 심포지엄/97.6.20 1 908/ 301
- <인터뷰> 동티모르 여성 독립운동가 이네스 알메이다 씨/97.6.24 2 910 / 306

<재일동포 우토로마을>

-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“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” 계획/97.5.31 1 895 / 268
- 인권협, 우토로마을 서명작업/97.6.17 2 905 / 295

<유엔 및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>

- 53차 유엔인권위 주요의제/97.3.18 1 844 / 147
-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, 국제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/97.3.18 1 844 / 147
- 제네바 소식 ① 3.10-14 /97.3.18 2 844 / 147
- 제네바 소식 ② 3.17-21 “유엔에서 거절당한 노벨평화상 수상자”/97.3.27 1 851 / 163
- 유엔인권위 웹사이트/97.3.29 1 853 / 167
- 제네바소식③ “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”/97.4.3 2 856 / 179
- 제네바소식 ④ 특별보고관, 연세대에서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/97.4.9 2 859 / 186
- 제네바 소식⑤ 분쟁지역 아동·아동매매준수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/97.4.17 2 865 / 199
-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 폐막/97.4.25 2 871 / 212
- 매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,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/97.6.14 2 904 / 293

7. 노동

-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, 삼성의 쌍용 인수 저지 연대총파업 선언/97.1.29 1 813 / 73
- 전노협 백서 발간, 민주노조 10년 기록/97.2.18 1 825 / 101
- 삼성, 노조설립 저지 안간힘... 민주노총, 부당해고 철회 등 촉구/97.5.2 1 876 / 226
- 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“ILO조약 87, 98호 비준” 촉구/97.5.2 2 876/ 227
-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,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/97.5.2 2 876 / 227
- 대우노조, 진상조사 촉구... 멕시코 현지노동자 인권유린 물의/97.5.21 2 887 / 252
- ‘제3자 개입’ 부활 규탄 민주노총, 노동부 앞 항의집회/97.5.22 2 888 / 254

-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/97.5.23 1 889 / 255
- 포철 범망 피해 정리해고, 삼미특수강 노조 60일째 농성투쟁/97.5.23 1 889 / 255
- 경남노협 김윤규 의장 등 구속, “삼성노조 지원 차단 의도”/97.5.27 1 891 / 259
- 영국 국가정보기관노조 복원 허용,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/97.5.27 2 891 / 260
- 민노총·민교협 토론회 “삼성 변칙세습 추궁”/97.5.31 1 895 / 268
- 부산 국민캠 택시노동자, 생존권 사수 투쟁/97.6.12 2 902 / 289

<고원노동권> → <전교조>

<노동법 개정투쟁>

- 종로·명동서 2만여 명 개악반대 시위, 민주노총 23만명 파업/97.1.7 1 797 / 39
- 단위사업장마다 집회참석 필사저지, 동산의료원 파업탄압/97.1.8 1 798/ 42
- 사회·시민단체, 대통령회견 일제 규탄 ‘인식부족·무대안·무책임’/97.1.8 1 798 / 42
- 국제인권단체 성명, “경제발전 미명하에 노동자 희생 안돼”/97.1.9 1 799 / 44
- 온라인 토론회 “노동법, 안기부법 기습통과와 총파업”/97.1.9 1 799 / 44
- 온라인 1백여 동호회 검은 리본달기, 총파업 지지서명 2천5백여명/97.1.10 1 800 / 46
-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하라, OECD·ILO 등 항의방문단 입국/97.1.10 1 800/ 46
- 총파업투쟁일지(96.12.26-97.1.9)/97.1.10 2 800 / 47
- 민변·참여연대, 민노총 지도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/97.1.10 2 800 / 47
- 전국 8백여 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, 노동·민주진영 총집결/97.1.11 1 801 / 48
- 총파업 투쟁일지(97.1.9-10)/97.1.11 1 801 / 48
- 현대자동차 노동자 정재성 씨 분신, 날치기 원천무효 주장/97.1.11 1 801 / 48
- <인터뷰>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/97.1.11 2 801 / 49
- 경찰, 병원노련 압수수색 과정서 성추행/97.1.11 2 801 / 49
-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, 분신노동자 격려방문/97.1.14 1 802 / 51
- 국내 언론,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/97.1.14 1 802 / 51
- 총파업투쟁일지(97.1.11-13)/97.1.14 1 802 / 51
- “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”, 박노현 교수/97.1.14 2 802 / 51
- 총파업투쟁일지(97.1.14)/97.1.15 2 803 / 52
-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·형법 학자들의 견해, “현파업은 저항권의 행사”/97.1.15 2 803/ 54
- 양대 노총 72만 노동부 10만 무려 7배차/97.1.16 1 804 / 54
- 병원노련, 성추행 규탄대회, 도덕불감증 정부 비난/97.1.16 2 804 / 55
- 전국 변호사 554명, “날치기처리 원천무효”/97.1.16 2 804 / 56
- 총파업 투쟁일지(97.1.15)/97.1.16 2 804 / 56
- 창원지법,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/97.1.17 1 805 / 57
- 폭행현장 목격자 외신기자를 찾습니다/97.1.17 1 805 / 57
- 민주노총 여론조사, 노동법 무효화 65.3%, 파업저지 65.6%/97.1.17 2 805 / 58
- 총파업투쟁일지(97.1.15-16)/97.1.17 2 805 / 58
- 통신서명 5천명 돌파/97.1.17 2 805 / 58
- 신한국당 TV토론 거부, 여론호도용 정치쇼 스스로 입증/97.1.18 1 806/ 59

- “파업포기 절대 안된다”, 전국서명교수·민교협 시국대토론회/97.1.21 1 807 / 61
- 민주노총·범대위, 노동법·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교수/97.1.21 2 807 / 62
- 걸으론 대화, 현장은 탄압, 민주노총 구속 8명의 고소·고발 416명/97.1.22 1 808 / 63
-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, “무효화,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”/97.1.22 1 808 / 63
- 국제엠네스티·휴먼라이츠워치, 안기부법·노동법 항의/97.1.22 2 808 / 64
- 투쟁일지(97.1.20-22)/97.1.23 2 809 / 66
- <인터뷰>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(노동정책연구소 소장)/97.1.24 2 808 / 68
- 양 노총 공동 전국노동자대회, 3월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/97.1.24 2 808 / 68
- 대전민가협, 파업 구속자 전원석방 촉구/97.1.25 2 811 / 70
- 총파업투쟁일지(97.1.23-24)/97.1.25 2 811 / 70
- 유권자 75명, 날치기 주역 검찰고발/97.1.28 1 812 / 71
- 전국교수 농성돌입, 악법철폐 및 재개정 촉구/97.1.28 1 812 / 71
-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,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/97.1.29 1 813 / 73
- 민주노총, 4단계 총파업 준비 박차, “한보사태 계기 재벌 비리철폐 투쟁”/97.1.29 2 813 / 73
- 영수회담 이후 노조 각개격파, 범대위·야권,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/97.1.30 1 814 / 75
- <발제문> “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”(김세균)/97.1.30 2 814 / 76
- 시민헌법재판, “날치기 노동법·안기부법 위헌”/97.1.31 1 815 / 77
- 예장총회 날치기 무효화 시국선언/97.1.31 1 815 / 77
- 노동법 집회 30명 부상, 민주노총 “부산경찰청장 파면” 요구/97.2.4 2 817 / 86
-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,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/97.2.4 2 817 / 86
- 재계, 4단계 총파업 부채질- 대안 외면, ‘노조 죽이기’ 총력/97.2.6 1 819 / 89
-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/97.2.13 1 822 / 95
- <인터뷰> 노동법 공동수업 진행한 정진화 교사-“파업은 권리”/97.2.14 1 823 / 97
-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지지개, 민주노총·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/97.2.14 1 823 / 97
- 교사단결권, 전세계 합의사항-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/97.2.18 1 825 / 101
- “앞으로 열흘이 노동법 승패 가름한다” 민주노총, 가두집회 재개/97.2.20 2 827 / 106
- 전국시국선언자대회, 노동법 재개정 촉구/97.2.21 2 828 / 108
- 민주노총 입장 변화없다, ‘정리해고 수용’ 보도 사실과 달라/97.2.22 1 829 / 109
- 안기부법 무효화 불투명, 24일 노동법안 심의/97.2.22 1 829 / 109
- “날치기 원천무효” 범대위 총력투쟁/97.2.25 1 830 / 111
- 51만여 명 서명 참여, ‘날치기 무효’ 국회청원/97.2.26 1 831 / 113
- 김 대통령 ‘말로만’ 반성,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/97.2.26 1 831 / 113
- 민주노총, 단위노조 간부 파업/97.2.27 1 832 / 115
- 범대위 자료집 판매/97.3.4 2 834 / 122
- 사회각계, 헌법재판소 위헌평결 촉구/97.3.8 1 838 / 132
- 민가협 정기총회서 날치기법 철회결의/97.3.8 2 838 / 133
- <표> 날치기 개정 이전과 여야 단일안 및 국제기준 비교/97.3.11 1 839 / 134
- 새 노동법, 노조 발목기 성공...교사단결권 유보, 파업권 제한/97.3.11 1 839 / 134
- 법학교수 “현재 판단 유보, 제2의 날치기 방조행위”/97.3.12 1 840 / 137
- 현재 공개변론서,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“날치기 정당했다”/97.3.12 1 840 / 137

- 전국연합 이 대표에 공개 선한 “날치기법 소신 밝혀라”/97.3.15 1 843 / 144
-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“안기부 바로세우기 힘쓸 것”/97.3.20 1 846 / 152

<노조탄압>

- 걸으론 대화, 현장은 탄압, 민주노총 구속 8명의 고소·고발 416명/97.1.22 1 808 / 63
- <악덕탄압 사업장 실례>/97.1.30 1 814 / 75
- 영수회담 이후 노조 각개격파, 범대위등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/97.1.30 1 814 / 75
-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,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/97.2.4 2 817 / 86
- 재계, 4단계 총파업 부채질- 대안 외면, ‘노조 죽이기’ 총력/97.2.6 1 819 / 89
-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/97.2.13 1 822 / 95

① 덕부진흥

- 안산 덕부진흥, 대량해고·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/97.1.28 1 812 / 71

② 한국타이어

- 한국타이어, 노동기본권 실종, ‘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’ 단식농성/97.3.7 1 837 / 130
-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파문확산, 민주노총 총력대응/97.6.26 1 912 / 310

<민주노총>

- 민주노총 제1회 정의평화상 수상/97.3.12 1 840 / 137
- <노동과 세계> 여론조사, 국민 53.3% 노조정치활동 찬성/97.3.28 1 852 / 165
- 민주노총·민교협 토론회 “삼성 변칙세습 추궁”/97.5.31 1 895 / 268

<산업재해/원진레이온>

- 재경원,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, “타는 불에 기름붓기”/97.1.9 2 799 / 45
- 직업병 피해자 4백여 명 대규모 농성/97.3.15 1 843 / 144
- 원진피해자 93명 연행 “원진 전문병원 설립” 촉구 시위/97.3.18 1 844 / 147
- 27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“원진 전문병원 설립” 촉구/97.3.27 1 851 / 163
- 원진피해자 치료 사례/97.3.27 2 851 / 164
- 원진환자, 치료받을 곳이 없다...원진피해자 치료 사례/97.3.28 1 852 / 164
- <현장방문> 원진 직업병 환자 입원한 서울기독병원/97.4.16 1 864 / 196
- 원진 직업병 환자 24번째 사망, 원진전문병원 설립 협상 결렬/97.4.16 1 864 / 196
- 원진 직업병 환자 농성 장기화, 16일 조병수 씨 장례식 치러/97.4.17 1 865 / 198

<외국인노동자>

- “외노 산재보상 방법없나”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...입국비용 없어/97.4.12 1 862 / 191
- 한국교회여성연합회,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토론회/97.4.29 2 873 / 216
- 국제법에서도 차별받는 외노, 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/97.5.1 1 875 / 223
-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/97.6.3 1 896 / 273

8. 동성애자

- 동성애자들, 일본대사관 앞 시위- 구별은 OK, 차별은 NO/97.6.19 1 907 / 299

· 동성애자모임, 성교육 교과서 개정촉구/97.6.27 1 913 / 312

9. 미군범죄

- 미군 공여지 되찾기, 주민 16명 환매소송/97.1.21 2 807 / 62
-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, 한·일 공동 '반환촉구' 성명 채택/97.5.13 1 882 / 239

<에바다 농아원>

- <기고>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농아원생 성폭행사건(정유진)/97.3.14 3 842 / 143
- 에바다농아원생 농성 129일째/97.4.4 1 857 / 180

10. 민간단체(NGO)

- 민언협, 동아일보 규탄 시위- 동아일보 사설 '전·노 사면' 주장/97.4.22 1 868 / 204
- "진보적 국제소식 전달", IPECK <아침세계소식> 발간/97.5.20 1 886 / 248

<민주노총> → <노동>

<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>

- 민변·참여연대, 민노총 지도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/97.1.10 2 800 / 47
- 민변, "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",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대립/97.1.18 2 806 / 60
- 민변, 북한 쌀 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/97.1.22 2 808 / 64
- "정부 북한돕기 직접 나서야" 민변, 창구단일화 폐지 요구/97.4.2 1 855 / 176
- "전·노 사면론 불가", 민변·과거청산위 등 주장/97.4.8 2 858 / 183
- 민변·참여연대, 특검제 도입 토론회/97.5.8 2 879 / 234
- 민변, '통신검열' 비난,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촉구/97.6.11 1 901 / 286

<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>

- 전국연합, 안기부 정치공작 의혹 지적/97.1.25 2 811 / 70
- 전국연합, "정치사찰 저의 우려"/97.2.19 1 826 / 103
- 전국연합, "대북 민간지원 인정" 촉구/97.2.21 2 828 / 108
- 전국연합 대의원 대회 "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" 결의/97.2.27 1 832 / 115
- 전국연합, 안기부 기밀유출 규탄·안기부법 재논의 촉구 /97.3.4 2 834 / 122
- 전국연합 이 대표에 공개 선한 "날치기법 소신 밝혀라"/97.3.15 1 843 / 144
- 전국연합 논평, "대북 식량지원 허용 환영"/97.4.1 2 854 / 174
- 안기부 북한돕기 모금 방해- 전국연합, 직권남용 비판/97.4.17 1 865 / 198
- "사면논의 절대 반대",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/97.4.18 1 866 / 200
- 전국연합 CUG 개설/97.5.7 2 878 / 231
-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, 전국연합 '경찰폭력' 추방 집회/97.5.24 1 890 / 257
- 전국연합, 유지웅 전경 죽음 애도 성명/97.6.4 1 897 / 276
- 전국연합 애도성명, 한총련 자성...투명수사 당부/97.6.7 1 899 / 281

- 자료-천리안에서 삭제 당한 전국연합 게시물(주요내용 발췌)/97.6.10 1 900 / 283
- <성명> 전국연합 "한총련과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 중단" 촉구/97.6.12 2 902 / 288

<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>

- 대전민가협, 파업 구속자 전원석방 촉구/97.1.25 2 811 / 70

<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>

- 전국교수 농성돌입, 악법철폐 및 재개정 촉구/97.1.28 1 812 / 71
- 전국교수서명모임, "독점재벌구조 개혁하라"/97.1.29 2 813 / 74
- 민노총·민교협 토론회 "삼성 변칙세습 추궁"/97.5.31 1 895 / 268

<불교인권위원회>

- 불교인권위 서래스님/97.3.28 1 852 / 165
- 서래스님 안기부 구금, 회합·통신, 기밀누설 혐의/97.4.2 1 855 / 166

<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/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>

- "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"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/97.1.16 2 804 / 56
- 김세진 열사 11주기 추모예배/97.4.29 1 873 / 215
- 박종철 열사 추모비 제막, 물고문 형상화/97.6.11 1 901 / 286

<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>

- 민변·참여연대, 민노총 지도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/97.1.10 2 800 / 47
-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, 참여연대 "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"/97.1.16 1 804 / 55
-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, 참여연대 성명/97.3.20 1 846 / 152
- '114 유료화 뭐가 좋아졌나' 참여연대 행정심판 청구/97.3.21 1 847 / 154
- 참여연대,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/97.3.27 1 851 / 163
-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보고사례/97.4.9 1 859 / 185
-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/97.4.26 2 872 / 214
- 민변·참여연대, 특검제 도입 토론회/97.5.8 2 879 / 234

<천주교인권위원회>

- 천주교인권위, 대만 핵폐기물 매립반대/97.1.25 2 811 / 70

<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/한국교회인권센터>

- 교회협 홈페이지 개설/97.2.18 2 825 / 102
- "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", AI 한국지부와 NCC 등 공청회 개최/97.5.1 1 875 / 223
- NCC 언론위 북한관련 보도 실태 모니터/97.6.20 2 908 / 302
- 경찰, 이철용 씨 간병인 출석요구...NCC, 진상규명 촉구/97.6.21 1 909 / 303

<한국여성단체연합>

- 여연 정기총회, "신한국당 대선 심판" 결의/97.1.25 2 811 / 70
- 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 재임/97.2.22 1 829 / 109
- 미세스코리아 선발대회, 주부 1천명 강력항의/97.3.5 1 835 / 124
- 민주여성 합본호 발간, 87-97년 한국여성운동사/97.4.1 1 854 / 173
- 여성계 717명 서명, "정부 즉각 북한식량 지원을!"/97.4.24 1 870 / 209
- "아직도 멀었다" 여성단체, 김영삼 정부 여성인권정책 평가/97.5.20 1 886 / 248
- 여성환경선언 "제품 불매운동·정책참여" 요구/97.5.24 2 890 / 258
- 국제심포 중 독일 발표 요지 "통일이 동독여성의 권리 후퇴 가져와"/97.6.20 1 908 / 301
- 여성단체, 19-20일 국제여성 심포지엄/97.6.20 1 908 / 301

<한국인권단체협의회>

- 인권협 우드로조사단 "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" 계획/97.5.31 1 895 / 268
- 재일동포 전후배상문제 해결해야, 인권협 우드로마을 서명작업/97.6.17 2 905 / 294
- 인권협등 유엔 탈식민지위원회에 '동티모르 민족자결권 촉구'/97.6.17 2 905 / 294

11. 북한

- <자료 요약>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: 북한편 ①/97.2.22 2 829 / 109
- NCC 언론위 북한관련 보도 실태 모니터/97.6.20 2 908 / 302

<북한동포돕기>

- '망명' 대서특필, 북 주민 생존권 외면/97.2.15 1 824 / 99
-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/97.4.11 1 861 / 189
- 통일을 향해 한민족의 마음을 모으자, 북한동포돕기범국민운동 선포식/97.4.11 1 861 / 189
- 통신에서 피는 동포사랑운동, '북한동포돕기 999운동'에 동참호소/97.4.24 1 870 / 209
-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,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/97.5.2 2 876 / 227
- "적선은커녕 쪽박깨기", 북한돕기문화공연 원천봉쇄/97.5.16 1 884 / 244
- 작가회의, 북한동포돕기 행사/97.5.24 1 890 / 257
- "정부, 해도 너무한다" 북 돕기운동 내사, "강력대응 불사"/97.5.29 1 893 / 264

12. 사법/판결

- 창원지법,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/97.1.17 1 805 / 57
- 주요 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/97.1.18 1 806 / 59
- 보호관찰대상생 학생회활동 금지,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/97.1.24 1 810 / 67
- 시민헌법재판, "날치기 노동법·안기부법 위헌"/97.1.31 1 815 / 77
- 시민·사회단체 특별검사제 촉구집회/97.3.4 1 834 / 121
- 사회각계, 헌법재판소 위헌평결 촉구/97.3.8 1 838 / 132
- 법학교수 "헌재 판단 유보, 제2의 날치기 방조행위"/97.3.12 1 840 / 137
- 헌재 공개변론서,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"날치기 정당했다"/97.3.12 1 840 / 137
-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, 참여연대 성명/97.3.20 1 846 / 152
- '잠수함 사건 의혹제기' 무죄선고, "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"/97.4.26 1 872 / 213

<영장실질심사제>

-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, 참여연대 "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"/97.1.16 1 804 / 55
-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-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/97.2.19 2 826 / 104

13. 사회복지

- '114 유료화 뭐가 좋아졌나' 참여연대 행정심판 청구/97.3.21 1 847 / 154
-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고려,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/97.4.1 1 854 / 173
- 사회복지정책의 실태' 세미나/97.4.22 2 868 / 205
-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"사회복지는 기본권"/97.4.23 1 869 / 207
- <자료 요약> 한국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(김창엽 교수)/97.4.24 2 870 / 210
-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"사회복지, 국가가 맡아라"/97.6.13 1 903 / 290

14. 양심수

-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, '재범우려' '비인도적 처사' 논란/97.2.6 1 819 / 89
- 영등포교도소, '안보' 이유로 면회 불허/97.2.21 2 828 / 108
- 장기수 김인서 씨 북한말 서신, 민족화해 차원의 송환 당부/97.3.6 1 836 / 127
- <표> 김영삼 정권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/97.3.8 2 838 / 133
- 민가협 정기총회서 날치기법 철회결의/97.3.8 2 838 / 133
- 장기수 권양섭 씨 운명, 20일 발인/97.3.19 1 845 / 150
- 기무사,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...대전교도소측, 정확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/97.3.25 1 849 / 158
- 정확려 씨 고소장 접수/97.3.27 1 851 / 163
- 장기수 진태운 씨 운명/97.4.3 1 856 / 173
-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 돌입, 황풍 우려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/97.4.29 1 873 / 215
-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배제/97.5.15 1 883 / 242
-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, 천주교 인권위 "인도적 조치" 환영/97.5.21 1 887 / 251
-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"김 대통령 퇴진, 보안법 철폐"/97.6.7 1 899 / 281

<보안관찰법/사회안전법>

-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, "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제한"/97.1.23 1 809 / 65
-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여전, 방양균 씨 출국제한/97.2.28 1 833 / 117
-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, '전향거부, 준법정신 회박' 사유/97.6.12 1 902 / 288
- 대법원,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"비전향사범, 감호처분 타당"/97.6.27 1 913 / 313

15. 어린이·청소년

- <국제인권뉴스> 과테말라 거리아동 고문살해혐의소송 3백건/97.3.21 2 847 / 155
- 제네바소식⑤ 분쟁지역 아동·아동매매춘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/97.4.17 2 865 / 199
-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/97.5.3 1 877 / 228
- 아프리카, 아동 성학대 심각/97.5.13 2 882 / 240

<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>

- 어린이·청소년연대회의 출판기념회/97.5.2 2 876 / 227
- <어린이권리조약에 대한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>/97.5.30 2 894 / 267
- <어린이 권리조약>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②> 국가위원회 설치/97.6.3 2 896 / 274
- <모니터 ③> 3개 유보조항의 철폐여부/97.6.4 2 897 / 277
- <모니터④>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/97.6.5 2 898 / 279
- <모니터 ⑤> 소년사법제도 개선(정연순 변호사) /97.6.7 2 899 / 282
- <최종회 ⑥>인권교육 이행여부 -'아동권',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/97.6.7 2 899 / 282

16. 여성

- AI 한국지부, 세계여성의 날 성명/97.3.8 2 838 / 133
- 민주여성 합본호 발간, 87-97년 한국여성운동사/97.4.1 1 854 / 173

<성폭력/성추행>

- 경찰, 병원노련 압수수색 과정서 성추행/97.1.11 2 801 / 49
- 병원노련, 성추행 규탄대회, 도덕불감증 정부 비난/97.1.16 2 804 / 56
- 재개발 지역, 집단폭행에 부녀자 성폭행까지/97.6.11 1 901 / 286

<연세대사태 여대생 성추행 사건>

-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, 여성·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/97.4.4 1 857 / 180
- 연세대 사태 여대생 성추행 사건, 항고이유서 제출/97.6.7 1 899 / 281

<일본군 위안부>

- 위안부시민연대 성금모금에 큰 차질, 정대협 언론오보에 항의/97.1.17 2 805 / 58
- 정대협, 한일회담 개최 반대/97.1.23 1 809 / 65
- 위안부 문제 시민연대, "국제연대로 전범처벌" 주장/97.2.1 1 816 / 73
- YS, '위안부' 언급 회피, 정대협 등 "굴욕" 비난/97.1.29 2 813 / 74
- <현장스케치> 강덕경 할머니 장례식/97.2.5 1 818 / 87
- 고 강덕경 할머니가 걸어온 길(김혜원 정대협 사료관 준비위원장)/97.2.5 2 818 / 88
- 일본전범 입국금지, 우리도 하자- 일본군 '위안부' 국제세미나 열려/97.2.28 2 833 / 118
- 북아일랜드 '여성과 전쟁' 세미나, 위안부등 전쟁시 성폭력문제 다뤄/97.3.13 1 841 / 139
- 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/97.4.2 2 855 / 177

17. 인권교육

-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, 개정형사소송법등 인권강의/97.3.14 2 842 / 142

<기획시리즈: 세계의 인권>

- 세계의 인권⑨ 폭력 속의 여성 "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/3 여성차지"/97.1.11 3 801 / 50
- 세계의 인권⑩ 초대받지 않은 손님, 이주노동자/97.2.1 2 816 / 84
- <세계의 인권 11> 기아 "굶주린 어머니와 배고픈 아이"/97.3.6 2 836 / 128
- <세계의 인권 12> 경찰폭력 "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"/97.3.28 2 852 / 166
- <세계의 인권 13> 가정 - 물러앉은 아버지, 위기의 가정/97.5.9 2 880 / 236
- <세계의 인권 14> 자유를 위한 맞섬, 언론인의 대가/97.6.13 2 903 / 291

18. 인권일반

-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/97.1.7 1 797 / 39
- 농민운동가 최종진 씨 폐암으로 운명/97.1.11 1 801 / 48
- 빈민운동가 김홍걸 씨 사망/97.1.23 1 809 / 65
- 억울한 형벌 '보호감호', SBS '그것이 알고 싶다' 실상보도/97.2.5 1 818 / 87
- 김 정권 34명 사형집행, 미집행 사형수 52명/97.2.6 2 819 / 90
- '남한 인권' 외면한 인권운동가 해리우/97.3.29 1 853 / 167

- 국민인권기구 연구 본격화- 민주법연, 시민운동지원금 받아/97.5.16 2 884 / 245
- 여성인권 "아직도 멀었다" 여성단체,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/97.5.20 1 886 / 248

<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>

-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,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/97.2.4 1 1 817 / 85
- <자료 요약>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: 남한편 ①/97.2.12 2 821 / 94
- <자료 요약>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: 남한편 ②/97.2.13 2 822 / 96
- <자료 요약>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: 남한편 ③/97.2.14 2 823 / 98
- <자료 요약>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: 북한편 ①/97.2.22 2 829 / 110

<6·10>

- "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?" 6월항쟁 주역, 살인죄로 10년째 복역/97.5.28 1 892 / 262
- 6월민주항쟁 10주년사업 주요행사/97.5.28 2 892 / 263

<인권시평>

- "아직도 인권타령이냐?" 김동한(광주여대 교수)/97.3.4 3 834 / 123
-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(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)/97.3.11 3 839 / 136
-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(곽노현 교수)/97.3.18 3 844 / 149
- 언론과 인권 (김동한)/97.3.25 3 849 / 160
- "인간이기를 포기"한 것은 누구인가?(서준식)/97.4.1 3 854 / 175
- 토지와 인권 (곽노현)/97.4.8 3 858 / 184
- 살맛나지 않는 세상(김동한)/97.4.15 3 863 / 195
- '인권이라는 것'에 대한 관심과 '인권'에 대한 관심(서준식)/97.4.22 3 868 / 206
- 물질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(곽노현)/97.4.29 3 873 / 217
- 민주주의와 인권(김동한)/97.5.7 3 878 / 233
- "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"(서준식)/97.5.13 3 882 / 241
-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(김동한)/97.5.27 3 891 / 261
- 평등권의 재발견: 포르노에 대하여(서준식)/97.6.3 3 896 / 275
- 대선주자토론회 "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" (곽노현)/97.6.10 3 900 / 285
-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(김동한)/97.6.17 3 905 / 296
- 한총련 사태를 보며-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(서준식)/97.6.24 3 910 / 307

<인권영화>

- ① 돌로레스 클레이븐 (김경실 민연협 영화반 회원)/97.3.14 2 842 / 142
- ② "시간은 오래 지속된다"/97.3.26 2 850 / 162
- ③ 다민족의 공존문제를 다룬 "론스타"/97.4.11 2 861 / 190
- ④ 제르미날- 프랑스 노동자들의 피맺힌 함성/97.4.23 2 869 / 208
- ⑤ <꽃잎> <부활의 노래>- 5·18 영화의 민중적 방식/97.5.15 2 883 / 243
- ⑥ <캐나다 베이컨> /97.5.22 2 888 / 254
- ⑦ <산부인과>- "산부인과,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?"/97.6.11 2 901 / 287
- ⑧- 송가황조 "역사는 그녀들에게 무엇이었나"/97.6.20 2 908 / 302

<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>

- 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고상만 간사/97.1.23 1 809 / 65
- ⑥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 "믿음으로 찍어낸 역사"/97.3.13 2 841 / 140
- ⑦ 아브라함의 집(한국출소인 상담연구소) 이동숙 씨/97.4.10 2 860 / 188

- ⑧ 강인영(광주 인권지기 사무국장)/97.5.29 2 893 / 265
- ⑨ 김학철(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)/97.6.19 2 907 / 300

<전자주민카드>

- 시민대책위,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의견서 내무부에 발송/97.3.22 1 848 / 156
- 제주, '전자주민카드 전쟁' 본격화- 민간단체와 당국 공방/97.4.19 1 867 / 202
- "통제?"... "편의?",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/97.4.25 1 871 / 211
- <쟁점>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/97.4.30 2 874 / 219
- 전자주민증 코 앞에,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/97.6.17 1 905 / 294

19. 장애인

- <기고>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(정유진)/97.3.14 3 842 / 143
-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/97.3.21 1 847 / 154
- 에바다 농아원생 농성 129일째/97.4.4 1 857 / 180
- 장애인들 몸소 편의시설 실태조사/97.4.18 1 866 / 200
- <현장스케치> 장애인들의 경복궁 나들이/97.4.18 2 866 / 210
- 말 한마디에 입 때가는 세상, 한총련의장 통신 ID 사용중지/97.5.27 1 891 / 259
- "세계 여성장애인 한자리에" 「빛장」 등 12명 국제포럼 참가/97.6.10 2 900 / 284

20. 정보통신

<윤석진 씨 사건> -> <국가보안법>

<전기통신사업법/통신검열>

- 야당·시민단체 전기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/97.1.17 1 805 / 57
-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,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/97.1.22 2 808 / 64
-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,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/97.3.11 2 839 / 135
-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, 통신 ID 줄줄이 정지/97.6.4 1 897 / 276
- <통신단체들의 반응> "누가 우리의 눈과 입을 강제하는가"/97.6.4 1 897 / 276
- 자료-천리안에서 삭제 당한 전국연합 게시물(주요내용 발췌)/97.6.10 1 900 / 283
- 통신검열...검열철폐로!, 전국연합·민주노총, 손배소송 등 준비/97.6.10 1 900 / 283
- 민변, '통신검열' 비난,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촉구/97.6.11 1 901 / 286

21. 주거권

- <성명> 도시빈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과 생존권 탄압 즉각중단 촉구/97.2.14 2 823 / 98
- 전문 철거강패에 폭행 당해 철거민연합 간부 3명 중상/97.5.1 1 875 / 223
- 공포 짓눌리는 철거민, 용산구 산천·도원동 재개발지구 폭력극성/97.5.2 1 876 / 226
- <현장 스케치> 돼지처럼 쫓겨난 양돈마을 철거민들/97.5.15 2 883 / 243
- 수원 원천지구 철거민 골리앗 투쟁 7개월째/97.5.17 1 885 / 246
- 원천 철거지구 긴급상황, 경찰 외곽봉쇄·전기 차단/97.5.28 2 892 / 263
- 원천 철거지구 고립 4일째, 초등학교 3일째 학교도 못가/97.5.30 1 894 / 266
- 원천 철거민 투쟁 마무리, 가수용단지 설치 결정/97.6.4 2 897 / 276
- 재개발 지역, 집단폭행에 부녀자 성폭행까지/97.6.11 1 901 / 286
- 장마시작...철거민 신음 쏟아져, 문정동·산천동 철거민 9가구/97.6.25 1 911 / 308

- 한국도시연구소등 무주거자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/97.6.26 2 912 / 311

<평택노점상 양승진 씨 사망사건>

- 평택노점상 생명위독, 철거과정에서 중화상/97.6.19 1 907 / 299
- 노점상 양승진 씨 뇌사상태...경찰, 동향파악이 우선/97.6.21 2 909 / 304
- 평택노점상 양승진 씨 사망, 비상대책위 '살인방화'로 규정/97.6.25 1 911 / 308

22. 의사·표현의 자유

-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'Q채널 영화제'- 심의 여전/97.4.23 2 869 / 208
- 검열 피해 '개구멍' 찾기,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/97.5.7 1 878 / 230

<언론·출판>

-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, "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"/97.1.14 1 802 / 51
- <언론비평> 이한영 씨 피격사건- 정부, 정치사찰 서둘러/97.2.20 1 827 / 105
- AI 한국지부, 언론인위원회 결성/97.3.28 1 852 / 165
- 고려대총학생회, "조선일보의 음해" 주장/97.4.10 1 860 / 187
- 언론, 또다시 광분- 전경사망 '의도적 오보'...경찰폭력엔 침묵/97.6.5 1 898 / 278

<집회·시위>

- 집회참가자 이유없이 물품 빼앗겨/97.1.28 2 812 / 72
- 노동법 집회 30명 부상, 민주노총 "부산경찰청장 파면" 요구/97.2.4 2 817 / 86
- 집시법, '보호법'인가 '탄압법'인가/97.2.11 1 820 / 91
- 경찰, 차량안 시민 불법감금- 부산역 집회서 '집시법 위반' 이유/97.4.22 2 868 / 205

23. 행형

- 수원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 단식농성/97.1.9 1 799 / 44
- 억울한 형벌 '보호감호', SBS '그것이 알고 싶다' 실상보도/97.2.5 1 818 / 87
- 영등포교도소, '안보' 이유로 면회 불허/97.2.21 2 828 / 107
- 기무사, 전향 강요...대전교도소측,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/97.3.25 1 849 / 158
- 정화려 씨 고소장 접수/97.3.27 1 851 / 163

<의료>

- 군산교도소 이동주 씨 눈수술, 수행자 치료비 "국비 원칙" 당연/97.1.21 1 807 / 61

<페스카마호 사건/사형제도>

- AI, 사형집행 중단 촉구 "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"/97.3.19 1 845 / 150
- <3회 연재>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채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 ①/97.3.19 2 845 / 151
- 페스카마호 선상폭력의 실상 ② "도끼와 칼이 난무하는 선상"/97.3.20 2 846 / 153
- 페스카마호 선상폭력의 실상 ③ - 선장의 하선 결정과 살인극/97.3.22 2 848 / 157
- <기고>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(오완호)/97.3.26 2 850 / 162
- 중국동포의 집, 페스카마호 살인범 돕기운동 전개/97.4.9 1 859 / 185
- <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> "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먼저"/97.4.12 2 862 / 192
- <인터뷰> 조봉(조선족 변호사, 페스카마호 사건 특별변호인)/97.4.15 1 863 / 193
- 페스카마호 사건,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/97.4.15 1 863 / 193
- <페스카마호 사건 관련,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>/97.4.16 2 864 / 197
- <페스카마호 사건 피고인 가족들의 애통한 심정>/97.4.17 1 865 / 198

- 페스카마호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/97.4.19 1 867 / 202
- "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", AI 한국지부와 NCC 등 공청회 개최/97.5.1 1 875 / 223
- <자료요약> 사형, 검증되지 않은 전통(오완호)/97.5.8 2 879 / 234

24. 환경

- 천주교인권위, 대만 핵폐기물 매립반대/97.1.25 2 811 / 70
- <성명>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/97.2.11 2 820 / 92
- "시민의 공원, 시민 스스로 지킨다", 능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 달째/97.4.26 2 872 / 214
- 인천중부서 25명 또 연행,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시위 6명 구속/97.5.17 2 885 / 247
- 여성환경선언 "제품 불매운동·정책참여" 요구/97.5.24 2 890 / 258

<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운동>

- 인천중부서 25명 또 연행,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시위 6명 구속/97.5.17 2 885 / 247
- 영흥도 주민 공권력 과 대치,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/97.5.28 2 892 / 263
-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강행과 주민 및 환경운동가 구속 규탄대회/97.5.29 1 893 / 264
- 영흥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, 화력발전소 건설로 주민 생존권 위협/97.6.5 2 898 / 279

25. 기타

- 하이텔 포커스 <햇 앤 쿨>, 인권하루소식 게재/97.4.2 2 855 / 177

<인권간행물>

- <서평> 세계적인 담론으로서의 인권(<사상> 겨울호)/97.2.21 2 828 / 108
- <한권의 책> 『국제인권법』(창간호)/97.3.15 1 843 / 144
- 새책 소개, 『5·18연구』 『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』/97.4.12 2 862 / 192
- 민변, 『새 노동법 해설』 발간/97.4.18 1 866 / 200
- 한권의 책 『법은 무죄인가』/97.4.26 2 872 / 214
- 새책소개- 『정말이지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』 『처음처럼』/97.5.3 2 877 / 229
- 새책- 일본군 '위안부' 문제 관한 책 2권/97.5.17 2 885 / 247
- 5공 조작사건 희생자 『역사의 심판...』 출간/97.5.22 1 888 / 253
- 새책 소개 『인권교육의 기법』 『청소년 인권보고서』/97.5.24 2 890 / 258
- 새책소개- 『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』/97.6.14 2 904 / 293
- 『여성, 그리고 노동자』 『꺼지지 않는 자주의 빛으로 살아』/97.6.21 2 909 / 304

<월 총목차>

- 12월분 총목차/97.1.7 2·3 797 / 40, 41
- 1월분 총목차(797-815호)/97.1.31 2·3 815 / 78, 79
- 2월 총목차(816-833호)/97.3.5 2·3 835 / 125, 126
- 3월호 총목차(834-853호)/97.3.29 2·3 853 / 168, 169
- 4월호 총목차(875-894호)/97.5.1 2·3 875 / 224, 225
- 5월 총목차(875-895호)/97.5.31 2·3 895 / 269, 270
- 6월 총목차(896-914호)/97.6.28 2·3 914 / 315, 316

<주간인권호름>

- 주간인권호름(12월 23일-97년 1월 7일)/97.1.8 2 798 / 43
- 주간인권호름(1월 6-12일)/97.1.14 2 802 / 52

- 주간인권호름(1월 13-19일)/97.1.21 2 807 / 62
- 주간인권호름(1월 20-26일)/97.1.28 2 812 / 72
- 주간인권호름(1월 27일-2월 2일)/97.2.4 2 817 / 86
- 주간인권호름(2월 3-9일)/97.2.11 2 820 / 92
- 주간인권호름(2월 10-16일)/97.2.18 2 825 / 102
- 주간인권호름(2월 17-23일)/97.2.25 2 830 / 112
- 주간인권호름(2월 24일- 3월 2일)/97.3.4 2 834 / 122
- 주간인권호름(3월 3-9일)/97.3.11 2 839 / 135
- 주간인권호름(3월 10-16일)/97.3.18 2 844 / 148
- 주간인권호름(3월 17-23일)/97.3.25 2 849 / 159
- 주간인권호름(3월 24-30일)/97.4.1 2 854 / 174
- 주간인권호름(3월 31일-4월 6일)/97.4.8 1 858 / 183
- 주간인권호름(4월 7-13일)/97.4.15 2 863 / 194
- 주간인권호름(4월 14-20일)/97.4.22 2 868 / 205
- 주간인권호름(4월 21-27일)/97.4.29 2 873 / 216
- 주간인권호름(4월 28일-5월 4일)/97.5.7 2 878 / 231
- 주간인권호름(5월 5-11일)/97.5.13 2 882 / 240
- 주간인권호름(5월 12-18일)/97.5.20 2 886 / 249
- 주간인권호름(5월 19-25일)/97.5.27 2 891 / 260
- 주간인권호름(5월 26일-6월 1일)/97.6.3 2 896 / 274
- 주간인권호름(6월 2-8일)/97.6.10 2 900 / 284
- 주간인권호름(6월 9-15일)/97.6.17 2 905 / 295
- 주간인권호름(6월 16-20일)/97.6.24 2 910 / 306

<인권하루소식> 합본 8

펴낸날 · 97년 8월
펴낸이 · 서준식
펴낸곳 · 인권운동사랑방

주소 110-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-29
대표전화 741-5363 팩스 741-5364
통신 ID rights(천리안, 하이텔) 인권사랑(나우누리)
인터넷 접속주소 <http://www.interpia.net/~rights/>

값 1만원